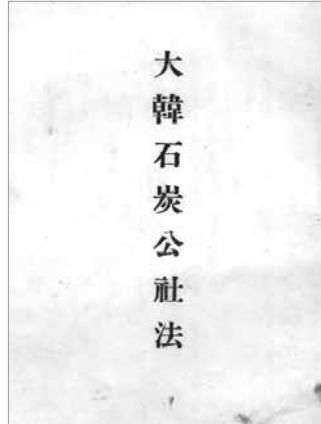


제2장 대한석탄공사 50년

제1절 창립배경과 경위

제2절 성장과정

제3절 50년의 발자취



▲ 대한석탄공사법

광복후 미군정과 민정이양 후의 과도정부 그리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까지의 정치적 변환기를 거치는 와중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석탄증산을 통한 산업 재건이었다. 그러나 국가경영체제의 미성숙과 사회적 혼란으로 석탄증산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연료난이 심화되자 공사의 필요성은 강력히 대두되었다.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새 정부의 최대 선결 과제는 연료문제의 해결로 이를 전 담 해결할 정부직할기업체의 설립은 매우 시급했다.

공사의 설립은 1950년 5월 4일 대한석탄공사법이 공포되므로써 구체화되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강행될 정도로 공사의 설립은 중차대하고 시간을 다투는 일 이었다.

1. 설립 배경

가. 생산 부진으로 연료 기근

공사 창립이 거론되던 194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연료난이었다. 8.15 광복으로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에서 탈피하였으나 석탄의 90% 가 매장되어 있는 북한지역이 38도선을 경계로 갈리면서, 남한은 나머지 10%에 의존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나마 대부분의 탄광들은 일본인 기술자의 철수와 탄광 근로자들의 귀향 등으로 공동화되었고, 광산시설도 잔류 주민에 의해 훼손돼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석탄이 없어 철도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1948년 5월 14일,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빌미로 북한이 전기공급을 중단해 버리자 남한지역은 암흑세계로 빠져들었다. 당시 남한의 발전시설이라야 영

월화력발전소와 1948년 2월과 5월에 긴급 도입한 미국의 발전선 2척(자코나호-2만kW, 일렉트라호-6,900kW)이 고작으로 병원이나 기관차 펌프 가동 등 긴급한 수요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었다.

그동안 중요한 연료로 이용해온 임산자원에도 더 이상은 기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태평양전쟁 기간 중 계속됐던 일본의 공출과 남획으로 국토가 이미 황폐해진 상황에서 가정용뿐만 아니라 공업용 연료까지 임산자원에 의존하게 되자, 산림의 훼손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어 모든 산이 벌거숭이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 자원인 석탄의 증산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나. 산업 재건을 위한 최우선 과제

정부수립 직후 우리 정부와 미국의 *경제협력처(ECA)*는 미국산업조사기관(DEJ)에 '한국산업재건에 관한 3개년(1950~1952)계획'의 수립을 의뢰했다. 이때 DEJ에서는 산업 재건에 필요한 석탄 수요량을 3백만 톤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1949년도 국내 석탄 생산량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ECA의 에드거 존슨 박사는 1949년, 미국의 한국 경제원조에 대한 기본계획을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비록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당시 국가재건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우선 순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존슨박사가 제시한 계획서의 골자는, 첫 단계로 남한의 산업발전에 가장 필요하면서도 많은 외화를 써서 수입하고 있는 석탄의 생산에 주력하고, 두 번째 단계로 증

(주) 194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주로 미국의 원조기관인 ECA(경제협력처: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여 원조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 하에서 ECA의 입김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DEJ 3개년 석탄수요량 조사						(단위: 천톤)
연도	기차용	발전용	공업용	관수용	가정용	합계
1950	700	650	600	100	920	2,970
1951	800	850	800	100	770	3,320
1952	900	1,200	900	100	640	3,740

산된 석탄을 이용할 발전시설에 집중 투자하며, 세 번째 단계로 증산된 전력을 활용하여 비료를 생산한다는 것이었다. 비료공장이 세워지면 석탄과 더불어 당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던 비료의 수입량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며, 반면에 증산된 쌀을 수출하면 외화획득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한국 경제 재건의 열쇠가 우선적인 석탄

의 중산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 정부 직영의 한계

이같이 연료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석탄 중산에 각별한 힘을 기울였다. 일본인이 개발하던 탄광을 국영으로 전환하여 직접 운영하고 광산시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석탄증산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정부 직영체제로는 예산조치, 자금조달, 판매활동의 자율성 결여 등으로 효율적인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효율적 증산을 위해서는 민간 개발이 필요함이 거론되었으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석탄광산에 참여할 정도의 민간자본이 형성돼 있지 않았고 민간자본이 성숙되기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당시 기간산업용 석탄은 원조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일부는 수입해 오고 있었다. 귀한 외화를 주고, 그것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12월 29일 담화를 통해 “석탄채굴은 긴급하다. 외국 의뢰는 부당하다”며 석탄의 국내 증산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국영으로 운영되던 탄광과 석탄관련 기업 및 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국영기업을 설립하여 석탄 기술자를 양성하고 앞으로의 국내탄광 개발과 석탄생산을 주도해 나가고자 하였다.

민영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였지만 당시 정부가 국영개발체제를 택하게 된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영국과 프랑스가 석탄산업 합리화를 추진하며 석탄청과 석탄공사를 설립하여 국영개발 체제로 전환한 것에도 영향을 받았다.

2. 설립 경위

가. 광복직후부터 추진

대한석탄공사의 설립은 광복 직후부터 추진되었다. 미군정 당시 김기덕 광무부장은 생산과 공급을 주도하는 강력한 국영기업체 설립을 제안하였으나, 시장경제의 원칙을 추구하는 미군정 당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미군정 당국은 1946년 5월 18일 조선석탄배급회사를 설립하여 탄광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과 석탄공급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대한석탄공사의 설립은 정부수립 직후 다시 추진되었다. 지하자원 개발은 국유로 한다는 제헌 헌법의 취지와 석탄 증산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국영'과 '기업' 성을 동시에 갖춘 '공사' 형태로 하기로 하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공사의 설립은 심각한 연료사정과 석탄증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여순반란사건 등 사회적 혼란으로 일시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1950년 5월 4일, 마침내 대한석탄공사법(법률 제137호)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나. 설립위원회 구성

법 제정까지는 상공부에서 주관하였으나 법 공포 후 공사 설립에 관한 모든 업무는 별도로 설치된 '대한석탄공사 설립위원회'에서 담당했다. 설립위원회는 1950년 5월 20일 허 정 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의 설립위원이 임명됨으로써 구성됐다. 당시 공사의 설립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설립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모두 정·재계의 최고인사들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5월 26일 제1차 설립위원회 전체회의가 상공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설립위원들은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공사 설립의 중요성과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착수하였다.

우선 「설립위원회 규약」을 제정하고 허 정 위원장과 유기동 부위원장, 그리고 5명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설립사무를 전담도록 했다. 6월 5일부터는 위원회 간사로 기술부문 정인욱 전 석탄과장과 사무부문 성 경 석탄과장 2인이 추가로 참여했다.

◎ 공사 설립위원 명단

위원장: 허 정

부위원장: 유기동

상임위원: 김성호, 조한벽, 강명옥, 김랑천, 장병랑 (5명)

비상임: 이석주, 조희순, 김기환, 민장식, 임문환, 전진한, 김유택,

황종률, 홍현표, 석상옥 (10명)

◎ 설립위원 주요 경력

許政: 제헌국회의원, 교통부 장관, 사회부 장관, 외무부 장관,

내각 수반

康明玉: 법제처 차장, 법제실 실장

李錫柱 : 반탁투쟁위원회 중앙위원, 제헌국회의원

閔壯植 : 4~5대 국회의원, 문교부 차관

任文桓 : 농림부 장관, 무역협회장

錢鎮漢 : 대한노총 회장, 사회부 장관, 한독당 대통령선거 입후보,
제헌~6대 국회의원

金裕澤 : 조선은행 이사, 재무부 차관, 한국은행 총재, 재무부 장관,
부총리, 6~7대 국회의원

黃鍾律 : 충북지사, 재무부 장관, 무임소 장관, 체신부 장관,
재무부장관

洪憲杓 : 재무부장 서리, 기획처장 서리, 내무부 차관, 체신부 장관

다. 설립준비 과정

설립준비위원회는 5월 27일 육군본부 정훈국 청사 2층에 사무소를 설치했다. 29일에는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과 예산안을 심의하였고, 31일에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설립준비금 2000만 원(1953년 화폐개혁 이전까지 사용하던 일본 화폐단위로 현재 원의 1/1000이며 이하 같다)의 예산을 확정하고 당시의 석탄 사정을 감안하여 설립기간을 당초의 50일에서 30일로 단축키로 결의했다.

6월 5일 제2차 설립위 전체회의에서 7월 1일자로 창립할 것을 결정한 이후부터는 거의 매일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6월 8일 제5차 상임위에서는 국영탄광 대표자들(지배인)과 공사에 인수될 예정인 조선석탄 배급회사 및 연탄회사 대표들과 회합을 가졌다, 설립 후 예상되는 애로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1950년 6월 23일 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76호)이 공포되고 같은 날 공사의 정관에 대해 대통령 최종 승인이 내려졌을 땐, 사실상 설립사무는 종결되어 역원(임원)에 대한 임명과 자본금의 불입만 남겨두고 있었다.

설립위원회들은 6월 24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1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6일에 대통령께 설립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설립업무의 종결을 선언하기로 결의했다.

이처럼 신속하면서도 순조롭게 진행된 공사의 설립은 최종단계에서 뜻하지 않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무기 연기되고 만다.

◎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록(1950년 6월 8일)

제5차 상임위는 추후 공사 산하로 편입된 모든 회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당시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공사 창립 전 해당기업들의 상황을 알 수 있다. 대다수 기업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삼척탄광(김종두)

- E.C.A. 원조자금으로 지난해 8억 3천9백만圓이 책정되어 있으나 1억圓만 지급되어 자금난 심각.
- 밀린 미불금이 7~8억圓으로 자본금 100억圓은 부족.
- 4월말 현재 종업원 수는 5,497명이나 정부 지시로 4,742명으로 감축 중.

영월탄광(태완선)

- 운영비를 안 주어도 2~3개월은 꾸려가겠지 생각하는 것이 문제.
-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고 물가폭등으로 자재를 구입하기 곤란함.
- 외자는 현금이 없으면 주지 않고 자금은 나오지 않음.
- 현 종업원은 4457명으로 감원을 추진중이나 돈을 못 주어 정리가 늦어짐.

함백탄광(전용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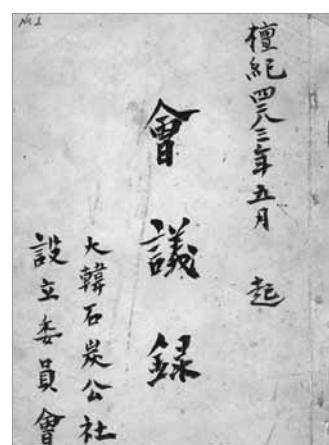
- 시설투자 중이나 애로가 많음.
- E.C.A.에서는 기계화하라 하나 미국인과 우리의 생각에는 차이가 많음.

화순탄광(김인승)

- 공사가 창립되더라도 자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산업부흥은 가망이 없음. 우리 탄광에는 이북에서 온 실향민이 많아 임금을 제대로 안주면 당장 그날 연명이 어려운 실정임.
- 부채 청산을 위해서는 1억 8천만圓이 필요하며 상공부, 재무부, 기획처 등의 자금을 갖다 쓰는데 너무 복잡하다. 서울에 올라와 2~3주일을 구걸해야 할 정도인데 돈은 주지 않고 석탄만 캐라니 문제다.

온성탄광, 문경탄광(백윤홍)

- 13년 전 개발하여 지금까지 생산량은 40만 톤. 종업원은 4월말 현재 865명으로 간내 71%, 간외 29%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간내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은 50명에 불과하다. 작업은 3교대로 시행하고 있음.
- 확장계획에 따라 1억圓의 예산이 통과되었으나 받은 것은 7천만圓뿐이고 돈이 안나와서 건설경비 지급을 중지한 상태임.



▲ 설립준비위원회 회의록

- 문경탄광은 개발 당시 초가집 세 채 밖에 없었음. 그런 곳을 무리하게 개발하고 석탄도 없는데 자꾸 캐라하니 문제임. 그런데 상부에서는 더 확장할 계획으로 9억圓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매장량은 있다고 함.
- 돈을 받고 일하자는 추세에 따라 부채는 없음.

울산, 길원영일, 동선탄광 (김팔수)

- 종업원은 4월말 현재 울산 372명, 길원 영일 436명, 동선 231명으로 대체적으로 작업에 지장은 없음.

단양탄광 (강환임)

- 해방 후 3년간 개발하여 3~4천 톤을 생산. 일제시대 매장량이 1억 2천만 톤이라 는 지질조사보고서에 의하여 개발에 착수했으나 지난해 다시 조사한 결과 60 만 톤 밖에 안된다 하여 확장계획 유보 중.
- 영월발전소 16km 지점에 옥동갱이 있는데 최근 E.C.A에서 현지 답사한 결과 1 인당 7톤을 캘 수 있다 하여 시험굴진 중.

석탄배급회사

- 현황을 구두로 보고하면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서면으로 하려함.
- (6.13. 서면보고 내용) 국산탄, 수입탄, 연탄 등 3종의 석탄을 취급하고 있으며, 채무액 38억圓, 예상수입 29억圓으로 9억圓이 부족하나 저탄 고려시 별 차이는 없음.

서울핏치회사

- 돈을 갖다 먹여도 6개월이 지나도록 탄광에서 탄이 없다 하고, 탄질이 나빠 별도로 선탄해야 할 지경이며, 공급량 중 사용 가능한 량이 4할에 불과함.
- 생산되는 마세크는 8할이 판매되고 있으나 원료를 구입하지 못해 능률이 저하되고 있음. 2개 공장으로 나누어 생산 중으로 종업원은 530명.

조선연탄

- 소화 12년(1937년) 일인에 의해 설립됐고 마세크를 제조하여 기차에 공급하고 있음.

3. 창립

가. 1950년 11월 1일 창립

전쟁의 발발로 무기 연기됐던 공사의 설립은 서울수복 후인 1950년 10월 23일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흩어졌던 설립준비 위원들은 한국 신탁은행빌딩 4층에 있는 조선석탄배급회사 지배인실에 다시 모여 제15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신탁은행 4층 조선석탄배급회사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키로 하고 인원을 재배치했으며, 전쟁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파악했다. 전쟁 중 소멸된 대통령의 정관인 가서'를 재발급 신청하고 전쟁 중 훼손된 각종 서류를 정비하는 한편, 미결사항으로 남아 있던 역원 임명과 자본금 불입이 이뤄진 후 다시 모이기로 결정했다.

드디어 1950년 10월 30일 초대 역원에 대한 임명이 있었다. 총재에는 허정 설립위원회 위원장이, 부총재에는 김성호 설립위원이 임명되었으며 김기덕, 김재준, 정인욱, 김병희, 장동량 씨가 이사로, 김문평, 최창열, 조한벽 씨가 감사로 임명됐다. 이어 범정자본금 100억圓중 제1회 불입자본금 40억圓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으로 입금됨으로써, 1950년 11월 1일 마침내 대한석탄공사는 창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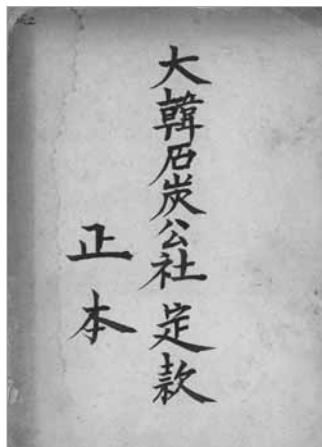
설립위원회는 11월 6일 최종적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허정 총재에게 인계함과 동시에 해산됐고 이날부터 공사의 업무는 시작됐다.

창립 후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공사 설립 사실을 대외에 알리는 일이었다. 공사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는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공사는 우선 조선석탄배급회사가 사용하던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30번지 한국신탁은행빌딩 4층을 본사로 정하고 1950년 11월 13일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11월 15일자 7개 중앙 일간지에 공사 설립사실이 공고됨으로써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

나. 운영사업체 지정

공사는 정부가 지정하는 사업체를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창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부의 운영사업체 지정이 있어야 조직이 완성된다. 그러나 6월 8일 설립위원회 개최 당시 대상 사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아, 설립 구상단계에서부터 운영대상 사업체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공사는 1950년 11월 15일, 조선석탄배급회사를 비롯한 11개의 탄광과 3개 연탄제조회사에 대한 운영사업체 지정을 정부에 신청했다. 사업체 지정 건은 11월 17일 국



▲ 최초의 정관

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12월 1일 대통령 결재가 이루어졌고, 12월 2일 '상광 제399호'로 그 결과가 통보되었다.

1차 지정에서는 공사가 신청한 사업체 중 문경, 단양 등 6개 탄광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공사는 1951년 4월 26일¹⁾ '공사가 창립된 이상 국가 중요 산업기관인 석탄광 산은 일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여 해당 탄광에 대한 추가 지정을 신청했고, 한달 뒤인 5월 25일 모두 지정받기에 이른다.

다. 자율성 결여

대한석탄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사' 형태로 설립된 최초의 기업이다. 광복 이후 유지되어 온 국영체제로는 탄광 운영의 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었으며, 민간에 의한 개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국가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었다. 더구나 석탄증산은 시각을 다틀 정도로 시급한 일이었으므로 우선적으로 공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공사로 하여금 생산, 수송, 분배 등 석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일괄 수행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유지하고 자율경영으로 인한 능률향상을 꾀하고자 했다. 권위 있는 인재를 등용하여 당시의 난국 타개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연료난 해결에 주력하게 한다는 것이 당초 정부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사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로 이어져 도리어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사법'과 「상공부 업무감독규정」을 통하여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함으로써 공사를 독립 기업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설립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창립 당시 부총재를 거쳐 제2대와 8대 총재를 역임한 바 있는 김성호 총재는 「석탄」지 제13호에 수록된 '석탄개발과 전력개발의 문제'라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설립준비단계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석탄공사의 설립이 시도된 바 있었는데. 국무총리 직속 하에 두고, 운영위원으로 총재 부총재 및 상임위원 2인 평위원 3인을 두어 완전 독립채산제인 국영기업체의 운영형태를 갖추려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원조기관이 전시구호기관으로 성격이 바뀌고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원조가 중단되면서 석공은 상공부 산하 부속기업체와 비슷한 경영체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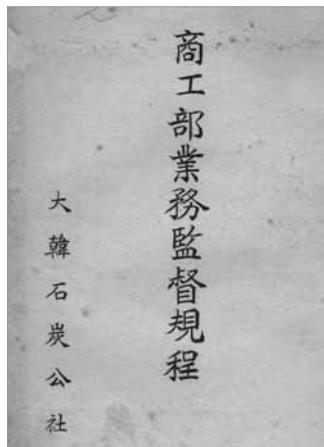
◎ 공사 창립일지

1950. 5. 4 공사법 제정 공포
 5. 20 설립위원회 위원 임명(허 정 위원장 등 17명)

공사의 운영사업체로 지정된 업체 현황

지정사업체	광복 이전 운영 상황		공사창립후 기구
	운영업체	본사 주소(당시 주소)	
석 탄 배 급 회 사	1946. 3. 설립		본사, 부산, 인천, 북호
삼 척 탄 광	주식회사	서울 태평통 1정목 19	장성, 도계, 임무소
영 월 탄 광	조선전업주식회사	서울 황금정 1정목 180-2	영월
화 순 탄 광	종연공업주식회사	일본 동경	화순
은 성 탄 광	일본광업주식회사	일본 동경	은성
문 경 탄 광	니시가라(西脇健治)	일본 동경	문경
단 양 탄 광	단양석탄공업주식회사	서울 남대문통 2정목 1	단양
울 산 탄 광	경주광업주식회사	경북 경주군 경주읍	경주
길 원 탄 광	이끼다(池田佑忠) 외	부산 부민정 2정목 18-2	”
동 선 탄 광	제가와(是川銀藏)	서울 동사간정 37	”
영 일 탄 광	1945. 7. 7 광업권 취소		”
함 백 탄 광	광복후 신규개발		함백
조 선 연 탄 회 사	조선연탄회사	서울 의주로 2가 27	청량리 등 7개 공장
삼국석탄공업주식회사	삼국석탄공업주식회사	서울 적선정 30	왕십리 등 8개 공장
서 울 핏 치 회 사	서울핏치회사	서울 동자동 41	영등포 1, 2 공장

5. 26 제1차 설립위원회 전체회의 (장소: 상공부 회의실)
 - 설립위원회규약 제정, 부위원장과 5명의 상임위원 임명
 5. 27 육군본부 정훈국 청사 2층에 설립사무소 설치
 5. 29 제1차 설립상임위원회
 - 설립예산안 및 정관 검토
 1950. 5. 31 제2차 설립상임위원회
 - 간사 및 임시직원 추천을 상공부 광무국장에게 요청
 - 설립예산 2300만圓을 2,000만圓으로 축소 조정
 - 설립기간 50일에서 30일로 단축 의결



▲ 상공부 업무감독규정

주) 1952년 2월 26일 상공부가 제정하여 1964년 6월 20일까지 시행한 규정으로 비록 5개 조문에 불과하나, 정부가 공사 경영에 일일이 간섭하는 근거가 됐다.

- | | |
|-------------|--|
| 6. 5 | 제2차 설립위 전체회의
- 예산안 심의 확정, 정관 심의
- 위원회 간사선임 기술부문: 정인욱(전 석탄과장),
사무부문: 성 경(석탄과장) |
| 6. 6 | 제3차 설립상임위원회 |
| 6. 7 | 제4차 설립상임위원회 |
| 6. 8 | 제5차 설립상임위원회
- 국영탄광 대표자, 석탄배급회사, 연탄회사 대표자
연석회의 |
| 6. 9 | 제6차 설립상임위원회
- 직제규정과 미불노임 지급에 관해 질의 토론 |
| 6. 12 | 제7차 설립상임위원회
- 제1차년도(1950.4~1951.3)사업계획 설명(단, 4~6월은 제외)
- 기구, 직제에 대해 김종사 광무국장 제안 내용 심의 |
| 6. 13 | 제8차 설립상임위원회 |
| 6. 14 | 제9차 설립상임위원회
- 밀린 노임을 1월부터 소급 지급키로 결정했음에도
미지급으로 노총에서 물의가 있으니 상공부에 대책
마련 촉구
- 제1회 불입금에 대한 논의: 당초 공사 설립비와
선박도입비 등 기타 부채를 변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운영비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실상 부채 청산 뒤에는
운영비가 부족하니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9. 15 | 제10차 설립상임위원회
- 사업체 인수인계 절차 협의 |
| 1950. 6. 16 | 제11차 설립상임위원회
- 흡수 합병되는 탄광 중 광업권이 미설정된 광업소는
설정후 인계(합백탄광이 대표적. 그러나 실행되지 않음) |
| 6. 19 | 제12차 설립상임위원회
- 7월 1일에는 발족될 수 있도록 그 전에 수속을 완료하고 |

- 그 후에는 공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진행토록 결정
6. 22 제13차 설립상임위원회(설립사무소 회의실)
 - 설립진행상황 대통령 보고안' 검토
 - 제1회 불입자본금 40억圓 납입 및 역원 임명 등 요청
6. 23 공사법 시행령 공포, 정관에 대해 대통령 승인
6. 24 제14차 설립상임위원회
 - 각 탄광 경리상황 보고 후 토의
 - 설립위원장 명의로 보고서를 작성, 26일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의결
 - 설립준비 완료, 27일 전체회의 개최 결의
6. 25 한국전쟁 발발로 설립 업무 중단
10. 23 제15차 설립상임위원회
 - 한국신탁은행 4층 석탄배급주식회사를 청사로 사용할
 것을 결의, 역원 임명 후 전체회의 개최 결정
10. 30 초대 역원 임명
 - 총재 허정, 부총재 김성호, 이사 5명, 감사 3명
10. 31 초대 총대 취임
10. 31 조선석탄배급회사로부터 본사와 부산지사 인수
11. 1 제1회 불입자본금 납입
11. 6 제3차 설립위 전체회의
 - 설립사무를 허정 총재에게 인계하고 설립위원회 해산
11. 13 설립 등기
11. 15 운영사업체 지정 승인 신청
11. 17 지사 및 출장소 설치 등기(부산, 인천, 목호)
12. 2 운영사업체 지정(상광 제399호)

1. 총괄

한국전쟁 중 창립되어 50년의 역사를 지켜온 공사는 오랜 기간만큼이나 숱한 난관을 헤쳐왔다. 에너지 정책과 시장 변화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변화되고, 경영상황 역시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다. 그러나 항상 공사의 이익보다는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중점을 두어,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 자원인 석탄의 개발과 수급 안정에 주력하고 석탄산업 발전을 위해 정진해왔다.

공사는 지난 50년간 크게 5단계의 과정을 거쳐 성장해 왔다.

창립 초기인 1950년부터 1956년까지는 전쟁의 발발과 피해복구, 저탄가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가산업 재건을 위한 석탄증산의 가치를 높이 든 시기였다.

1957년부터 1966년까지는 석탄산업 철도의 개통과 석탄가격의 현실화로 경영상황이 흑자로 호전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증산 정책에 힘입어 국내 석탄개발을 선도하며 경제개발의 초석을 놓았다.

1967년부터 1973년까지는 연탄파동에 의한 연료정책의 전환에 따라 유류 사용이 급증하고 판매경쟁이 심화되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던 시기였다.

1974년부터 1986년까지는 두 차례의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석탄증산을 통해 국가 경제를 수호하고 가정용 연탄의 수급 안정을 담당하며 고속성장을 이루한 시기이다.

그리고 1987년부터 2000년까지는 소득증대와 유가안정으로 인한 국민연료의 전환에 따라 각고의 노력으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왔다.

2. 폐허를 딛고 일어서다(1950~1956)

가. 석탄증산에 주력

1950년 11월 1일 전쟁의 와중에 창립된 공사는 처음부터 결코 순탄치 못한 출발을 해야 했다. 운영사업체 모두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대대적인 투자가 없이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설립 단계에서부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던 자본금은 피해복구를 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랐다. 더구나 전쟁 이후 극심한 물가상승으로 그 가치가 줄어, 3회에 걸쳐 나뉘어 불입된 자본금은 한 달 운영비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전쟁으로 국가재정이 바닥난 상태에서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석탄가격과 판매대금의 미수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당시 석공탄의 판매가격은 공사법과 재정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정 가격제다. 그러나 매번 물가인상의 억제라는 명분 하에 원가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책정됐고 이는 곧장 경영손실로 이어졌다. 기록상으로는 창립 직후 2년간 흑자를 내어 국고에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1백만 톤에 달하는 재고탄의 평가차익을 감안한 것으로, 생산이 본격화된 1953년부터는 결손이 발생

시대별 환경과 특징

구분	창립기	발전기	침체기	성장기	합리화기
대외환경	기간	1950~1956	1957~1966	1967~1973	1974~1986
	핵심에너지	임산자원	석탄	석유	석탄, 석유 청정연료
	연료정책	피해복구	주탄중유	주유중탄 석탄: 가정용 산업용: 석유	화석연료 사용제한
경영상황	경영손익	적자	흑자	적자	적자후 흑자전환
	생산	증산	증산	정체	증산
	주요수요처	철도, 발전용	민수용	민수용	정책 수요
	시장에서의 공사 역할	공급	수급조절	판매	수급조절
	주요사안	창립 전쟁피해 복구 군파견 민영화	자립경영 구축 연료전환 주도 탄좌개발 지원 수급조절 담당 근대화 추진	성주, 나전 인수 제1수송 준공 경영합리화 추진 경영다각화 모색	증산 선도 무연탄 수입 비축업무 담당 제2수송 건설 태백훈련원 건립

하였다.

또한 석공탄은 주로 공공기관과 기간산업시설에 공급되었으나 수요처의 자금 사정으로 판매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1950년대 내내 계속되어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었다.

1952년의 감사보고서에서 그 단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감사보고서에는 “선금 판매가 원칙임에도 6월 20일 현재 국내탄 150억圓, 수입탄 71억圓의 미수가 남아있다. 부득이한 점은 인정되나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해당기관으로 조선전업(11억圓), 대통령 관저, 상공부장관 관저, 육군본부, 병기행정본부, 해군본부, 조선방직, 내무부, 해군공창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는 임금 지불을 유예하면서까지 석탄 증산에 주력하여 1951년 7만8천 톤을 생산하고, 1952년에는 44만여 톤, 1953년에는 68만 톤으로 증산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1954년 마침내 임금체불에 대한 파업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군지원단이 파견되게 된다.

한편 재정난으로 복구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던 정부는, 1952년 국무회의에서 ‘국영기업체 불하’를 의결하며 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민영화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나. 전쟁피해와 복구

(1) 피해내역

전쟁 빨발과 함께 모든 광업소의 생산활동은 중단됐다. 직원들은 떠나고 쟁내외 주요 시설은 파괴되었다. 특히 기계, 전기시설 등 쟁외시설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였다. 포격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잔류 주민에 의한 인위적 파괴가 더 많았으며, 세 차례나 전쟁터가 됐던 영월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1952년 3월에 조사된 피해액만도 780억圓으로 당시 법정 자본금의 8배에 달했다.

장성, 도계 : 노후한 기전 설비의 피해가 가장 심했으며 전기부품과 저장품 등은 인위적인 훼손으로 바닥이 났다. 사택시설은 두 차례 피난으로 대부분 빙집으로 변했고 잔류 주민들은 빙집을 부숴 연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전쟁 직전 공사 중이던 1500호의 사택시설은 처음부터 다시 짓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파괴되었다.

7천 미터에 달하는 간도는 전면 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되었고, 전체적으로 장

성이 도계에 비하여 더 많은 피해를 보았다.

영월 : 직접 교전이 벌어진 곳으로 포격과 공습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기전 시설과 변전시설 등 중요시설이 모두 파괴되었고, 사무실, 사택, 창고 등도 소실 또는 붕괴되었다. 특히 판교갱의 침수는 복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였다. 피해 간도는 총 6400m에 달한다.

함백 : 전쟁 전 약 20억圓을 투자하여 신규 개발에 착수한 함백은 직접적인 포격은 없었으나, 미완성 설비들을 방치해 놓음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간도는 대부분 탐단갱으로서 탄층에 착탄되지 못한 상태에서 붕괴되었다.

화순 : 주로 빨치산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9.28수복 후 전남일대에 남아있던 빨치산이 광업소를 습격, 방화와 수탈을 거듭함으로써 전체시설의 90%가 파괴 또는 소진되었다. 간도와 본관은 복구가 곤란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

은성, 문경 : 침수와 붕괴된 간도가 2500m에 달하고 일부 시설이 파괴되었으나 이는 자연 방치에 의한 것으로 비교적 피해가 경미했다.

단양 : 광업소 지역이 전쟁터화 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했다. 시설 소실과 간도붕괴 등 파괴율이 80%에 달했다.

경주 : 공신군의 침범은 받지 않았으나 자연 방치에 의한 훼손과 도난으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기전시설에 대한 피해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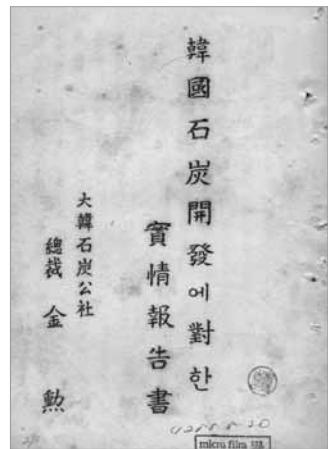
(2) 피해복구

치안이 확보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복구를 시작하였다. 1951년 3월 은성에서 개

창립기의 경영상황(1950~1956) (단위: 천원, 천톤)

연도	자본금불입	생산	판매	인원(명)	당기손익
1950	4,000				24
1951	6,000	78	80	3,214	10
1952		444	357	5,865	-35,139
1953	50,000	683	543	6,941	-24,291
1954		668	670	7,439	-34,814
1955		959	860	8,268	-48,906
1956		1,262	1,328	8,739	

주) 1955년 결산기간: 1955.7.1~1956.12.31



▲ 한국 석탄개발에 대한 실정 보고서

도복구에 착수한 것을 시작으로, 8월까지 화순, 도계, 영월, 장성 순으로 시작되었다.

복구사업은 대량 생산과 발전용 탄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두었으며, 특히 삼척지구와 영월의 복구에 치중하였다. 자금부족으로 인해 화순은 형식적 복구에 머물렀고, 가장 빨리 작업에 들어갔던 은성의 경우도 소규모 복구에 그쳤다. 또한 문경, 단양, 경주 등 규모가 작은 광업소와 개발 초기에 있던 함백에 대한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저탄, 운반 시설 등 최소한의 보수에 그쳤다.

(3) 전쟁 중 생산

전쟁의 피해는 시설의 파괴 이외에도 탄광근로자의 해상을 초래해 정상적인 생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다. 전쟁의 와중에 탄광근로자를 다시 소집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광업소가 다시 문을 열자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오는 직원들도 적지 않았다.

공사는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서둘러 생산을 병행해 나갔다. 그 결과 은성은 1951년 4월, 장성과 도계는 9월, 영월은 10월, 화순은 11월부터 생산이 재개됐다. 그러나 나머지 4개 탄광은 미처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휴광 중이었다.

다. 군지원단 파견

(1) 대통령 직접 지시

광업소별 피해액(1952년말 현재)

(단위: 백만圓)

탄광명	갱도시설	기전시설	토건시설	저장품	합계
장 성	2,280	8,547	3,372	40	14,239
도 계	159	2,511	720		3,389
영 월	1,673	15,179	7,848	2,700	27,399
함 백	33	5,882	1,509	1,278	8,703
화 순	88	4,771	5,181	1,597	11,636
은 성	423	1,605	577	264	2,869
문 경	132	1,095	801	91	2,119
단 양	250	2,764	2,032	47	5,093
경 주	14	2,101	76	273	2,464
합 계	5,053	44,453	22,115	6,291	77,912

심각한 자금난을 겪던 공사는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지연하면서까지 시설복구와 중산에 모든 자금과 역량을 투입하였다. 몇 달씩 임금을 받지 못하고 배급으로만 연명하던 직원들은 급기야 1954년 12월 2일, 48시간 파업(제2편 제6장 노사화합, 제2절 2·가항 참조)을 단행했다. 노동법 제정 이후 최초로 터져나온 이 파업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됐고 결국 대통령이 직접 해결에 나서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12월 27일 유시문을 발표하고 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대통령 특명으로 김일환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육군지원단을 공사에 파견한 것이다.

당시 유시문에 나타난 군지원단 파견 목적은 첫째, 공사의 실정조사 보고 둘째, 석탄개발지원 셋째, 산업철도의 신속한 건설지원 등이었다.

◎ 대통령 유시: 원문

大統領 議示

大秘指商第十號

檀紀4287年 12月 27日

大統領

商工部 長官

陸軍 參謀總長 貴下

大韓石炭公社 總裁

石炭公社가 우리나라 經濟發展에 第一 重하고 急한데 지나간 七八年을 두고서 첫째는 우리나라 石炭가지고 「부리켓」 만드려 外國石炭代用을 할려고 努力하였으나 안되고 石炭은 海外에서 들여와야 한다고 하며 以前에도 每朔 百萬弗어치 日本炭을 輸入했고 지금 와서 七八十萬弗式 每朔 들여와야 된다고 하니 大端히 憤한 일이며 그뿐 아니라 번번히 財政不足으로 해갈 수 없다고 해서 그때마다 돈을 주었는데 지금 와서는 石炭公社의 負債가 七八億이라 하고 있고 지금도 더 주어야 한다니 지나간 七八年 해온 結果가 점점 어려워지며 炭礦勞務者에게 몇달식 賃金을 支給 못해서 그 사람들이 굶을 지경에 들어 어쩔 수 없이 同盟 罷業을 했다니 이대로 해서는 앞으로 進展할 希望이 없어 生覺다 못해서 지금 陸軍에 指示해서 金一煥中將 高百圭准將 金應伯大領 엄홍섭 少將을 식혀서 大統領의 指揮를 받아 石炭公社에 들어가서 炭礦의 形便과 勞務者들의 生活하는 政況과 財政을 調查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主張해서

얼마동안은 이 사람들의 權限으로 石炭開發을 하여 鐵路를 速히 建設하라고 指示해 보내니一般石炭公社總裁 以下로 누구던지 ——하| 文書와 모든 것을 밝혀서 보이고 事實을 알려서 내게 報告케 할 것이다.

石炭公社에 屬하는 모든 任員들과 勞務者들이 다 잘못해서 이렇다는 것도 한편 책망할 수 있겠지만 實上은 石炭값이 低廉해서 이만한 經費를 덜어서 그 값을 내려 가지고는 石炭파는 사람들 밥 주기가 어려우니 事實 지금 일하는 사람들을 全的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軍人들이 들어가서 矯正할 일은 矯正하고 發展할 일은 發展시키고 勞務者의 居處 食凡節을 改良해 주며 또 賃金을 하루바삐 多少間 얻어주게 해야 겠음으로 이 意圖로 이 사람들을 보내니 全的으로 支持해서 政府에서 石炭公社를 잘 도와줄려는 그 目的을 遂行케 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는 UNKRA의 援助로 鎮山發展의 機械輸入과 技術者 養成을 하기 위해서 石公과 協

한국전쟁중 생산실적				
탄광명	1950.7. 이후	1951	1952	1953
장 성	-	2,652	139,821	308,630
도 계	-	20,040	88,909	125,097
영 월	-	23,156	126,376	137,503
화 순	-	7,983	41,679	56,416
은 성	-	23,843	46,885	54,954
함 백	-	500	-	-
계	-	78,174	443,670	682,600

議가 되어서 推進中이니 이것을 새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約條한 것은 그대로 施行하며大小間 解決하기 어려운 問題가 있거든 大統領室로 報告해야 할 것이다.(以上)

(2) 군파견단 편성도

(3) 군지원단의 주요 활동

(가) 문제점 조사

군 파견단은 먼저 실상 파악에 착수하여 11개 항목에 걸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과정을 직접 지원하였다. 당시 지적된 11가지 문제점을 통해 초창기 공사가 직면해 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 경영정상화를 위해 1954년 12월 27일 대통령 지시로 군지원단이 파견됐다. 간접을 실은 군지원 차량이 장성에 도착했다.

◎ 군지원단 진단 석공운영 문제점 11개 항목

1. 노동생산의 저효율성
2. 간내 굴진을 위한 소요 간목의 부족과 그 수송능력 부족
3. 소요 전력(電力)의 미확보
4. 육 해상을 통한 석탄수송의 부진과 그 도구의 부족
5. 일선 현장을 연결하는 통신시설의 미설치
6. 운영 및 기업자금의 극심한 부족
7. 자본금의 부족
8. 정부석탄가격 정책의 비합리성과 비현실성
9. 기업적자 정부 보전의 긴급성
10. 석탄개발자금의 기대성에 비추어 금융여신 획득 곤란
(기업 자체의 신용도가 없음)
11. 석탄개발자금의 정부예산에 미편입

(나) 주요 지원 내용

1957년 철수할 때까지 군지원단은 연인원 22만 명의 병력과 1만1천대(연 동원 대수)의 차량을 동원하여 간목과 양곡수송을 지원하는 한편, 본사와 광업소 간 무선시설을 설치하고 사택 보수와 문화관을 신축하였다. 또한 작업복 1만8천여 벌과 내의 와 모포 1만5천 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생활을 지원했다.

군지원단 활동 중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는, 먼저 군부대에 의해 건설된 영암선 등 석탄산업 철도의 건설이다. 또한 1955년 2월 김일환 단장의 제안으로 설치된 '한미합동 대한석탄공사 운영대책위원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석탄산업철도 건설〉

영암선, 문경선, 함백선 등 석탄산업철도는 정부수립 직후 정부가 석탄증산을 추진하며 착공하였으나 전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던 것이 휴전 직후 군지원단에 의해 다시 재개되어, 1955년과 1956년에 걸쳐 완공되었다.

군은 1205 건설공병단, 210 건설공병대대를 비롯하여 301 철도운영대대 A중대, 509 수송부 춘양파견대 등을 투입해 선로공사를 지원하였다. 군파견단의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문경선(점촌↔은성 22.5km)이 1955년 9월 19일, 영암선(영주↔철암 86.4km)은 1955년 12월 31일, 함백선은 1차 구간(제천↔영월)이 1956년 1월



▲ 대통령 유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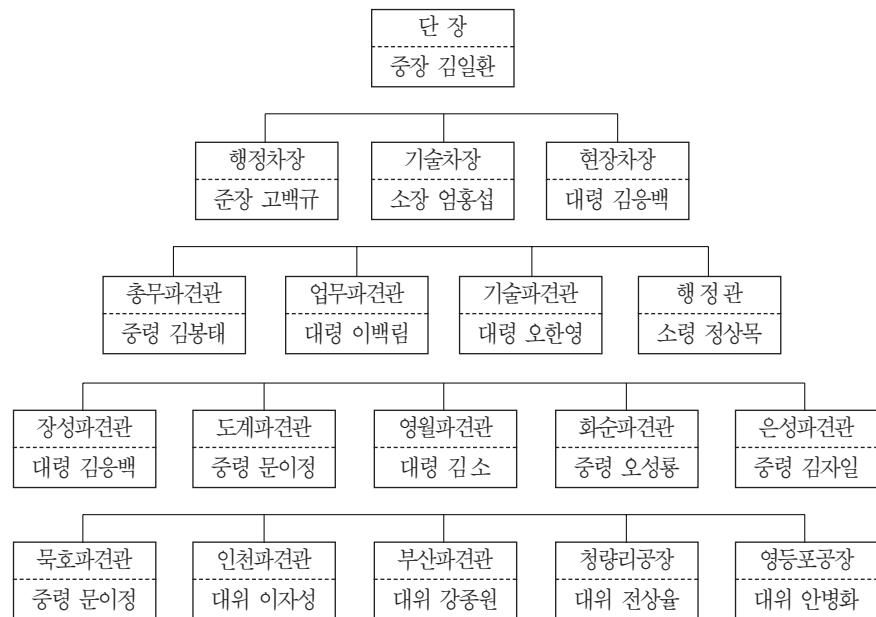
17일, 2차 구간(영월↔함백, 1.2차 총 구간 60.7km)이 1957년 3월 9일 각각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개통되었다.

이 같은 석탄산업철도의 개통은 우리 석탄산업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까지의 석탄증산시대를 여는 기원이 되었다.

〈한미합동 석공 운영대책위원회〉

초대 파견단장인 김일환 중장의 요청으로 1955년 2월, 외국 원조자금의 효율적 지원과 파견단의 업무협조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범 정부 조직체로서 한국 측에서는 상공부, 부흥부, 재무부, 교통부, 농림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공사, 육군파견단이 참여하였고 UN측에서는 FOA(ICA), UNKRA, KCAC, KCOMZ 등이 참여하였다.

위원회는 회의 결과, 한국 정부와 UN, 그리고 공사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별도로 선정하여 건의하였다. 그 중 공사와 UN이 담당한 사항은 추후 어느 정도 실현되었으나, 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항은 재정부담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였다.



한편 초기에는 공사의 경영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위원회가, 1955년 9월 ‘한미합동 탄광개발 촉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된 후에는 민영탄광에 대한 지원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 한미합동 석공 운영 대책위원회 보고서 내용

한국 정부측에 대한 건의사항

1. 판매가격이 능히 생산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조속히 탄가책정방법을 수정할 것.
2. 195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소요자금 7억7백만 환(1953~1962년까지 사용되던 단위로 현재 원의 1/10로 이하 같다)의 은행 융자를 확보하도록 조치할 것.
3. 석탄공사의 자본금에 14억 환을 더 증자시킬 것.
4. 함백탄전을 개발하기 위하여 함백탄전의 소유권을 속히 결정할 것.
5. 재무부는 석탄공사가 그때 그때에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고, 또한 한 소요자금을 은행에서 수시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설정할 것.
6. 재무부는 석공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귀속재산 및 광업권을 석공에 이양할 것.

FOA(미국 대외활동본부)와 UNKRA(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실시 사항

1. 1955년 1월 1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시설비를 확보, 지불할 수 있도록 FOA와 UNKRA는 그 대출자금 중에서 12억8천7백만 환을 석탄공사에 방출할 것.
2. FOA는 석탄공사와 그 탄광의 생산개발 계획을 실행함에 소요되는 외자의 방출에 관하여 그 대책을 수립할 것.
3. UNKRA는 최근의 고문계약기관이 경과할 경우라도 필요에 따라 기술원조를 지속할 것.

석탄공사가 담당할 사항

1. 긴급 소요자재 구입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자금을 확보할 것.
2. 각 탄광별로 세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전반적인 탄광개발 계획안을 수정할 것.
3. 3개월간 각 탄광별 생산 목표를 작성하고, 목표 수량을 초과 생산한 데 대하여 상여제도를 채택할 것.
새로운 생산목표는 각 기간 말 1개월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사원과 광부들의 수익을 위해 생산목표 수량을 광고할 것.
4. 인사문제 및 임금지불건
 ① 광부들의 사기를 양양시키고 석공의 능숙한 일꾼들이 개인탄광이나 기타 직장으로 전직하지 않도록 광부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불할 것.

- ② 생산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노무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급 및 숙박에 대한 계획을 작성할 것.
 - ③ 쟁내 채굴 작업에 대하여 특별수당을 지불하여 가일충 장려하도록 하며 기타 모든 쟁내 노무자에게 특별 수당을 지불할 것.
5. 기술자들의 급료를 인상하고 기술자들의 훈련과 휴양을 도모할 것.

라. 민영화 추진

(1) 신속한 전후복구 등이 이유

당초 정부는 ‘광물 기타 주요한 지하자원은 국유로 한다’는 제헌헌법 규정과 석



▲ 영암선 개통식 장면

탄개발과 같은 중대 사업은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전쟁 발발 후 정부의 국영개발 정책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영성과의 부진, 미국경제고문단의 창의적인 운영방안 건의, 귀속업체의 신속한 복구와 부홍 등을 이유로 국영기업체의 민영화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공사의 민영화도 함께 제기되었다.

◎ 공사 해체론과 공사의 입장

이현재 당시 경리부차장은 사보 창간호에 ‘아국 탄정과 석공의 당면과제’라는 글을 통해, 당시 제기되고 있던 공사의 해체론과 민영화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였다. 공사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과 내부의 사정 등 당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 글을 요약 정리하여 본다.

“석공은 해체하라” “민영화다”라는 주장에 대해, 재직하고 있다 하여 편견을 갖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 그보다는 국민의 일원으로 석공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대국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반 당면문제를 명백히 논하여 보고자 한다. (이하 ‘은 해체론의 주장이고 ’은 그에 대한 이현재 차장의 반론이다.)

운영이 원활치 못하여 거액의 결손 발생하여 국민의 귀중한 국고금을 좀먹고 있다.

1953년 상반기 170억 환의 결손 발생은, 영월탄광의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가 톤당 10만 환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데다가 기타 양곡, 갱목, 수송비 등의 급등에 의한 손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석공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영기업체란 도대체 불안스럽고 비능률적이며 비현실적이다

법적으로 제반 구속과 감독 관청의 명한 바에 따라 운영되므로 간혹 슬로우모션이 없는 것은 아니나, 비능률적이고 상거래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이라 할 수 없으며 관리 재산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인사가 있다면 정부에 대한 모욕이다.

지하자원 특히 석탄 채굴에 귀중한 국고금을 막대히 투입함은 국가 재정상 곤란하며 무한정 투자사업이다.

장성 영월의 매장량을 보거나 현존시설, 운영자금 규모를 볼 때 개인자본으로는 불가능하며 결국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간부를 위시하여 인적 면으로 개개의 비난이 적지 않다.

인신공격은 자신의 무능력의 소치요, 석공 역원은 공사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오가 있을 시는 상응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석탄의 질이 나쁘다.

탄의 우량 불량을 논하기는 복잡하며 모략적 언사임이 분명하다.

석탄판매에 있어서 불공평하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

수입탄에 대한 문제로 수입량 격감으로 그의 배정을 전적으로 당국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논외 문제다.

토탄사업, 중소 탄광탄의 매입 등 대국적인 광범주 하에서 석공의 시명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토탄사업은 농림부에 이전할 정책이므로 이후는 문제 외이고, 중소 탄광에서 생산탄의 매탄 문제는 탄질이 저하한 까닭에 판매부진으로 부득이한 조치이다.

(2) 연탄공장 등 매각

국영기업체의 민영화 추진은 부산 피난시절이던 1952년 시작되어 1954년 1월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본격화됐다.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영기업체 불하를 결정하고, 5월 8일 국무원 고시 제15호를 통해 공사의 운영사업체 등을 국영으로 지정했던 국무원 고시 제12호와 제13호를 폐지함으로써 공사의 운영사업체 모두가 *국영에서 귀속사업체로 전환되었다.

공사의 민영화는 공사 전체를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영사업체로 지정된 업체(사업소 단위별)를 개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고 수익성이 높은 연탄공장이 먼저 민영화되어, 1953년부터 1955년 사이 17개 연탄 공장 모두가 민간에 불하됐다. 또한 1954년 11월 26일 문경, 단양, 울산, 길원 영일, 동선 탄광이 운영사업체에서 지정 해제되어, 1956년 6월 보광인(공사 창립 이전 관리인) 등에게 인계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6개 광업소는 그 규모가 방대한 까닭에 인수를 희망하는 자가 없어 유보되었다.

공사의 매각은 그 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1961년 2월 16일에는 재무부에서 남아있



▲ 이승만 대통령은 모범산업전사를 서울로 초청하여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모범산업전사와 산업전사의 노래〉

군 지원단은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 '군예대(軍藝隊)'로 하여금 광업소 순회 공연을 하고 19명의 모범산업전사를 서울로 초청하여 경무대를 방문하는 등의 대대적인 위로행사를 개최했다.

그 행사의 일환으로 정부는 모범산업전사의 노래를 제작했다. 모윤숙 작시에 안병소 가곡을 붙인 이 노래는 1960년대 초까지 산업전사의 서울 방문때마다 불리워졌다.

1. 보아라 광활한 삼천리 강산

뻗어간 산맥이 우리의 생명
그 속에 들어찬 탄광의 줄기
파내세 우리의 억센 힘으로

2. 장하다 험준한 바위를 뚫고

달린다 전사의 날래인 모습
동굴속 깊은데 뛰어들어서
다같이 일하세 굳센 용사야

3. 산에는 비오고 바람불어도

풍우를 헤치고 싸우는 기개
그누가 당하리 뭉친 우리 힘
묵묵히 끌어낸다 파무친 석탄

(후렴)

어여차 뭉쳐져서 산으로 가자
손에 손 마주잡아 광으로 가세
나오라 이 땅의 산업전사여
씩씩하게 이루자 건설의 나라

던 6대 탄광에 대한 일반경매 입찰을 시도하였으나 공사만이 단독 입찰하고 가격 미

달로 유찰되었다. 그러나 1964년 6월, 해당 6개 광업소의 광업권과 모든 재산이 현물 출자(3. 나. (4)항 참조)되면서 마침내 민영화는 종지부를 찍는다.

3. 경제개발의 주역(1957~1966)

가. 석탄 자급자족 실현

전쟁 피해와 저탄가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공사는 영암선, 문경선, 함백선 등 석탄산업 철도의 개통과 1957년 1월의 대폭적인 석탄가격 인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는다. 비록 정부의 국영탄광 불하와 민간자본의 석탄산업 유입 본격화로 한때 어려움으로 겪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경영합리화와 1961년의 공사법 개정, 1964년 현물출자 등으로 자립경영체제를 확립한다.

1956년 최초로 생산량 1백만 톤을 넘긴 공사는, 이 같은 기반을 토대로 본격적인 증산에 매진하여 1959년 2백만 톤, 1962년 3백만 톤, 1963년 4백만 톤을 돌파한 후 1966년 470만 톤에 이르기까지 고속 증산을 실현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달성을 원동력을 제공했다. 또한 1957년에 기술훈련소를 설치하여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1961년 『석탄개발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이후 대형탄좌 설립을 지원하는 등, 국내 석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1966년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석탄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게 된다.

공급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가정용 연료전환을 주도하고 석탄의 공급지역 확대와 수급조절 등을 통해 연탄 사용을 중대시킴으로써, 연료의 근대화를 이룩하였을 뿐 아니라 전쟁 후 황폐화된 산림을 보호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내에너지 시장의 주연료는 임산자원에서 석탄으로 일대 변혁을 맞이하게 되었다. 1957년 총 에너지 소비의 73%를 차지하던 선탄(숯, 장작)은 1966년 35%로 축소되었고, 반면 14% 불과하던 석탄(무연탄) 소비율은 46%(석유는 17%)까지 올라 석탄이 국내에너지의 시장의 주역이 됐다.

그 밖에 장성 제1수갱 건설과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무연탄화력발전소 건립, 광부 서독 파견, 동경올림픽 파견 체육선수단 양성 등 공사의 활약은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이뤄졌다.

1957년부터 1966년까지 공사는 이와 같이 자립경영체제를 갖추고 석탄증산을 주도하여 석탄산업을 이끌며 에너지 혁명을 이룩해냈다. 이 시기에 공사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혁혁한 공적을 남기게 된다.

나. 자립경영체제의 확립

(1) 흑자 전환

공사는 창립 이후 줄곧, 장성탄을 목호에서 선적하여 해상 수송로를 통해 부산과 인천으로 공급해 왔다. 이 때 소요되는 수송비용은 1956년을 기준으로 하여 톤당 3618환에 달했으니, 생산원가까지 포함할 경우 법정가격 5100환으로는 당연히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영암선 개통 이후 수송비는 톤당 333환으로 감소되고 1957년 1월 법정가격이 5100환에서 7800환으로 52%나 인상됨에 따라, 공사는 본격 생산에 착수한 이래 처음으로 5억 7천8백만환의 흑자경영을 이룩한다. 이후 계속적인 흑자 경영으로 1960년에 이르러서는 창립 초기에 발생한 *누적 결손을 해소하고, 1965년에 이르러서는 7억원 가량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공사의 경영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1954년 12월에 파견되었던 군지원단은 1957년 8월 철수하기에 이른다. 또한 초기부터 정부가 공사 업무에 간여하는 기준이 되었던 「상공부업무감독규정」이 1964년 6월 폐지됨에 따라 공사는 비로소 자립 경영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2) 경영합리화 추진

공사는 1957년부터 본격적인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 1957년 기술훈련소를 설치하여 기능인력을 양성함과 함께 인력모집을 공개 채용으로 전환하고, 1958년에는 판매강화를 위해 전국에 판매대행점을 설치했다. 또한 1959년 미국의 석탄개발 자문기관인 유솜(USOM)과 장성 및 공사 일반관리에 대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장기개발체제의 확립을 추진했다.

1958년에는 석탄의 공급과잉으로 발생한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6개 항의 경영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 일부가 1960년 이후 정부의 정책에 반

주) 국영과 귀속사업체 모두 정부에서 관리하기는 마찬가지이나 국영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매각되는 반면, 귀속사업체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연고자에게 불하되므로 처리가 용이하다.

영되면서 공사는 명실공히 국내 석탄산업을 주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공사의 경영합리화는 5.16 군사혁명 이후 공사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더욱 강력히 추진됐다. 1961년 6월 인사쇄신을 단행하여 부패, 무능, 취업 부적한 직원을 대규모(743명)로 해직하는 한편, 공개 채용을 통해 유능한 인력을 새로이 확보하였다. 그 결과 1963년에 이르러서는 평균연령 1.5년 감소, 학력 9%상승 등 견실한 조직으로 체질개선을 하였다.

기구 조직도 강화 개편하였다. 1961년 3월, 경영규모 확대에 따른 제반 활동의 기획·통제기구로 기획부와 관리부를 신설하고, 민영탄광 육성업무 수행을 전담하는 기구로 개발부를 설치하는 등 체제 정비에 나섰다.

1961년 5월부터 열관리연구소를 인수 운영하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기사실을 신설했다. 또한 판매 강화를 위해 중요 도시에 배치한 주재원을 출장소로 격상시켜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체질 개선과 체제 정비로, 공사는 더욱 굳건하게 석탄산업을 선도하여 경제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3) 공사법 개정

1961년 12월의 공사법 개정은 국내 석탄개발을 공사가 주도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개정 공사법은 『석탄개발 임시조치법』의 제정으로 막중해진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히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의 명목상 금액에 불과한 6억환의 자본금이 200억환으로 대폭 늘어나 경영난이 해소되고 석탄산업을 이끌어 나갈 여력이 마련되었다. 1958년 공사가 경영 개선 대책으로 55억환의 자본금 증자를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파격적인 증자였다.

둘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한시적이지만 법인세, 영업세, 취득세 등 주요세금을 면제하여 자본 충실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면세조항은 공사의 지원 하에 설립된 대형 탄좌들에도 공히 적용됐다)

셋째, 자본금의 3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을 회사가 보유토록 했다. (1963년 2분의 1일로 확대된다). 1960년에 이르러 공사의 누적결손이 완전히 해소되었는데, 종전과 같이 이익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이를 적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개발

을 위한 시설투자가 가능해졌다.

넷째, 국가적 견지에서 석탄증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공사가 광산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즉 민영광산이라 할지라도 석공이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단의 조치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권 및 관리운영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현물출자

창립 이후 공사는 정부가 지정한 광산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본인에 의해 개발된 장성, 도계, 은성, 화순, 영월탄광의 경우 광구나 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광업권은 국가 소유로 되어 있고, 부동산과 시설은 귀속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1952년부터 추진한 '국영기업체 불하' 계획에 따라 1961년 2월 공사가 보유한 6개 광업소 매각을 위해 공개입찰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공사에서

발전기의 경영상황(1950~1956) (단위: 천원, 천톤)

연도	자본금불입	생산	판매	인원(명)	당기손익
1957		1,520	1,428	9,523	57,805
1958		1,461	1,495	8,024	2,123
1959		2,163	2,163	10,131	56,391
1960		2,576	2,241	10,365	33,269
1961		2,907	2,984	10,137	182,434
1962	568,527	3,535	3,463	12,641	199,265
1963		4,257	4,115	13,804	146,798
1964	1,371,473	4,641	4,404	13,871	60,725
1965		4,630	4,894	12,962	113,072
1966		4,705	4,973	12,386	-197,641

는 지속적으로 현물출자를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입찰에 참가하여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입찰은 공사만 참여하고 예정가격 미달로 유찰되고 말았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불하방침을 고집하지 못하게 된다.

이어 5.16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정부는 공사에게 '에너지 자급자족의 실현'이라는 중임을 맡기게 된다. 정부의 석탄산업 부흥을 위한 제반 입법조치와 강력한 증산

계획 추진으로 공사의 입지는 확고해졌다.

공사법 개정으로 자본금이 200억환으로 증자되어 추가 불입에 대한 부담을 느끼던 정부는 1964년 6월 20일 4개 광업소(6개 광업소중 함백과 영월은 제외)의 광업권과 관리재산을 공사에 현물출자하게 된다. 이로써 10여 년 동안 공사의 존립기반을 흔들어왔던 '민영화'는 종식되고, 공사는 확고한 자립경영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다. 민영탄광 개발 조성

(1) 기술인력 공급

주) 창립 당시 공사법 제25조에는 "결산의 결과 이익금이 생활 시에는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적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53년 5월 개정되면서 제1항에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보전한다."고 규정하여,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을 명시했다. 그러나 1950년과 1951년 결산 결과 이익금을 국고에 납입한 사례는 있으나 1952년부터 발생한 적자에 대하여 정부가 보전한 사례는 없다. 결국 공사는 1957년부터 발생한 흑자' 부분으로 그 동안의 누적적자를 메우게 된다.

1960년대 국내 석탄산업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는 공사의 기술과 기술인력의 역할

영암선 개통과 수송비(1956. 장성탄 기준)

(단위: 환/톤)

항목	개통전		개통후
산지원가	2777환/톤		
수송비	철암⇒목호(육송)	186	철암⇒청량리(육송) 333
	목호⇒인천(해송)	3,182	
	인천⇒서울(육송)	250	
	계	3,618	
공급원가	6,395		3,110
법정가격	5,100		
판매이익	-1,395		1,990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석탄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부족은 해방 직후부터 제기됐던 문제로, 공사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이 공사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창립 직후 공사는 UNKRA와 기술자 양성에 관해 협의하였으며, 1954년 12월 이승만 대통령도 군지원단 파견을 지시하면서 기술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사는 1957년 3월 장성에 기술훈련소를 설치했다. 그 해 6월 5일 33명의 입소를 시작으로 공사는 인력 양성에着手하는 동시에, 10여 명의 기술직원을 공채를 통해 * 선발하였다. 또한 1959년부터 PMC와 장성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기술자와 접촉하며 선진기술 습득에 힘썼으며, 1962년부터는 *콜롬보계획에 따라 채광 기술사원을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 정기적으로 연수를 보내 선진기술을 익혀오도록 하였다.

이렇게 양성된 기술인력은 1962년 이후 민영탄광 개발 지원에 대거 참여하여, 국내 석탄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 민영탄광 개발 지원

1961년 『석탄개발임시조치법』과 1962년의 『광업개발조성법』의 제정으로, 공사는

공사가 건의한 경영개선 방안과 실행내용

건의사항	실행 내용
(1) 현자본금 6억환을 55억환으로 증자하여 연간 4억환에 달하는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긴급한 미지급금을 청산한다.	1961년 공사법 개정시 200억환으로 증자
(2) 결손액 8억 53백만환을 정부가 보전한다.	미 실현(1960년까지 이익금으로 보전)
(3) 탄가의 결정을 공사의 자율에 맡긴다.	미 실현(1961년 11월,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하는 고시가격제도로 변경)
(4) 1958년 생산계획은 저탄 및 판매실정을 고려하여 계획 205만 5000톤을 136만 3000톤으로 축소하고 추후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증산한다.	1958년 146만톤 생산으로 감축하였으나 판매가 호전되며 1959년부터 다시 증산
(5) 32개 도시에 판매대리점을 설치하고 판매체계를 강화한다.	1958년 1월 20개 도시에 판매대행점을 설치하였으나 판매 호전으로 1959년 폐지, 1961년부터 재설치
(6) 석탄대량 수요지인 20개 중요도시에 대한 장작 반입 금지 조치를 취한다.	1962년 산림녹화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탄좌 설립과 민영탄광 개발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탄전 전반에 대한 시추작업의 수행이었다. 시추는 국립지질조사소 소관 사항이었으나, 민영탄광에 대한 시추 업무는 민영탄광 기술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가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사는 1963년부터 개발부 인원을 증원하여 대대적인 시추를 수행하는 한편 6개 탄좌와 민영탄광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기술, 시설, 운영자금 등 광업 개발자금 융자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민영탄광 개발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1962년에는 만항광구(2개 광구로 함백광구와 함께 취득)를 출자하여 *삼척탄좌를 설립하였다.

라. 연료전환과 산림녹화

(1) 연료전환 주도

휴전 직후 정부는 산림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가정용 연료를 장작에서 연탄으로 전환하는 연료전환책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조차 수립할 수 없었던 정부는 이를 전담할 기관으로 열관리협회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열관리협회는 외형적으로는 상공부 산하 비영리 단체지만, 대한석탄공사의 이사가 운영에 참여함은 물론 모든 경비를 공사에서 부담했으므로 사실상 공사의 기구나 다름없었다.

공사는 열관리협회를 통해 재래식 아궁이를 연탄 사용이 가능한 아궁이로 개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당시 각양각색으로 시중에 공급되고 있던 연탄과 전국 모든 탄광의 생산단에 대한 열량 시험을 거쳐 표준 모델을 제정했다. 또한 전국을 순회하며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적 차원의 연료 전환을 주도했다.

연료전환의 추진은 가정용 연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수입 유연탄을 사용하는 산업용 연료를 국내탄으로 전환시키는 일에도 앞장섰다. 열관리협회는 이후 열관리연구회로 변경되었다가 1962년 공사에 인수되어 기술연구소로 발전한다.

(2) 공급지역 확대

연탄이 가정용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부산 피난시절부터다. 인구 집중과 산림의 황폐화로 주변에서 장작을 구하기 힘들었던 난민촌에서는 당시 묵호를 통해 부산으로 공급되던 석탄으로 구명탄을 만들어서 연료로 사용했다. 휴전 이후 그때의 피난민들을 통해서 연탄의 존재가 전국으로 알려졌으나 석탄의 생산량 부족과 운송철도의 미비로 연탄의 사용이 확산되지는 못했다.

1958년 민영의 개발 참여로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고, 민영이 기피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을 공사가 담당하게 되면서 연탄 사용의 전국적 확산에 불을 지피게 된다.

정부는 지역별로 연탄가격의 차이를 두지 않기 위해 수요지 도착 기준으로 석탄 가격을 책정하였으므로 도착지까지의 수송비는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민영은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는 대도시와 인근 도시에 대한 공급에 주력하였으나 공사는 민영이 기피하는 원거리 지역과 철도가 부설되지 않은 해안 및 도서 지방에 대한 공급을 담당하여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연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영과 공사의 이러한 공급체계는 1980년대까지 유지됐다.

이같이 석탄의 공급지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사는 정부에 석탄 공급이 원활한 중소도시에 대한 장작반입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기에 이른다. 기업 이윤을 초월한 공기업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사는 국민 연료의 근대적 전환과 산림녹화에 기여하였다.

(3) 수급조절

공사는 1960년대 초부터 하계저탄을 시행, 급격히 늘어난 민수용 연탄의 계절별

자본금 계정 내용(1964. 6.20)

항 목	금 액 (환)		비 고
법 정 자 본 금	20,000,000,000		1961.12. 증자
기불입자본금	8,385,271,000		1964. 6월초 현재
신 규 불 입 자 본 금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4,487,073,680	
	자산평가차익의 자본전입	136,100,000	영월은 한국전력
	광업권 현물출자	3,568,002,400	소유로 현물출자
	관리자산의 현물출자	3,423,552,920	에서 제외
	소 계	11,614,729,000	
계		20,000,000,000	

수요 차이를 해결함으로써 연탄 사용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민수용 수요는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거의 없다가 겨울철에 폭주한다. 이러한 계절별 수요 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당시 탄광과 연탄공장,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중요 소비지에 저탄장을 설치하여 여름철

〈1964년 6월 20일은 제2 창립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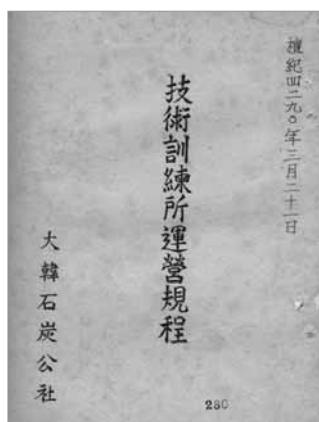
공사는 창립초기 자율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광업권 및 운영사업체에 대한 재산권도 보유하지 못하여 독자적인 경영을 할 수 없었다.

공사의 총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경영진의 신분은 공무원에 준하는 것이었다. 탄가 결정이나 사채 발행 등 중요 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며,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는 국고에 납입하고, 결산 결과는 상공부를 비롯해 재무부, 심계원(현재의 감사원)은 물론 대통령과 국회에까지 보고해야 했다. 이러한 정부의 통제와 간여는 '상공부 업무감독규정'에 따라 공사의 모든 업무에 걸쳐 행해졌다.

또한 광업권은 국유재산(1952년 광업법 제정후 기존의 광업권은 國으로 등록된다)이고, 운영사업체로 지정된 모든 사업체는 귀속재산(광복전 일본이 소유한 재산을 국유화한 것으로 고유의 국가재산과는 별도로 관리했다)으로, 공사는 사실상 그 재산의 관리인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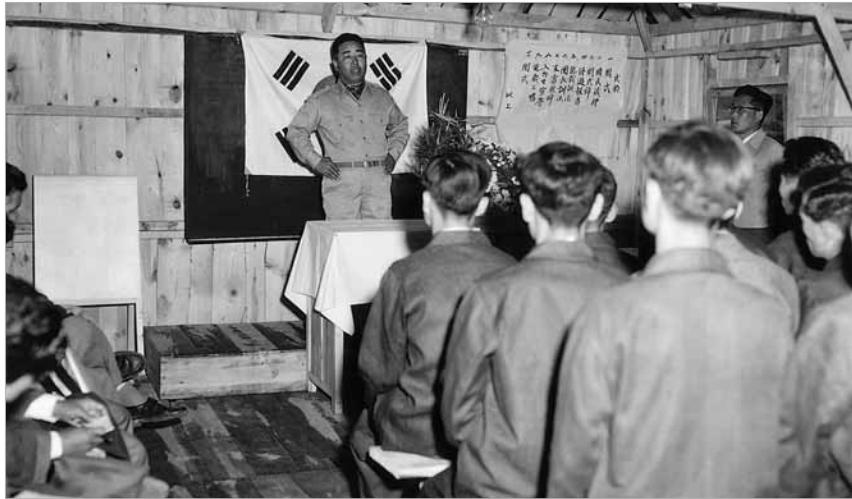
그러던 중 1964년 6월 20일을 기해 광업권과 운영사업체(단, 영월만은 1972년 폐광 이후 한전으로부터 인수받는다)가 공사로 현물출자 되고, 상공부 업무감독규정도 폐지됨으로써, 공사는 비로소 자율경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1964년 6월 20일을 제2의 창립일이라 할 수 있다.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저탄한 후 성수기 공급이 모자랄 때 이를 공급함으로써 겨울철 연탄의 공급 안정을 유지시켰다. 공사는 막대한 비용과 판매 손실의 부담을 감수하며 하계저탄을 수행하여, 연탄의 공급안정과 연료전환에 기여해 나갔던 것이다. 공사의 이와 같은 하계저탄 정책은 석유파동 이후 정부 주도하에 시행되는 연료 수급조절 정책의 기원이 된다.

공사의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1958년까지 증가 일로에 있던 신탄 소비량은 1959년부터 급속히 줄어들었고, 절반 이상 민동산으로 변해 있던 국내 산림은 점차 회복되게 된다.



▲ 장성 기술훈련소 설치후 첫번째 입소식이 거행되고 있다.

마. 경제개발 기반 조성

(1) 무연탄 화력발전소 건립

공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1958년부터 저질무연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같은 계획은 전적으로 수력에 의존하던 당시의 체제로서는 획기적인 내용으로 1960년대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의 기원이 되었다.

당시 공사는 국내 최대의 전력 소비처로서 작업장의 심부화, 생산의 기계화, 증산 등으로 전력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전과 조선전업에 의존하고 있던 전기의 공급사정은 여의치 못했다. 1958년 1년 동안 6개 광업소에서 총 839회 (558시간)의 정전이 발생, 11만 톤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정도였다. 또한 1957년 이후 국내 석탄 생산량이 증대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월탄과 함백탄 등 저질탄이 산지에 체화되고 있어, 그 처리를 위해서도 무연탄 화력발전소의 건립이 필요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저질무연탄을 화력발전에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공사는, 장기석탄증산계획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향후 200만 톤(총 생산량의 10%) 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저질탄의 활용을 위해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였다.

공사의 화력발전소 건립 사업은 먼저 장성 선탄장에 8천kW급 발전소를 설치하여 소요 전력을 자체 조달하는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59년 원조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장성개발 계획은 수정됐다.

그후 1960년에 발전소 건립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공사는 우선 영월지역에 10

주) 대졸 공채의 기원으로, 이후 공사는 신입 직원을 공채로 선발하게 된다.

주) 콜롬보계획 : 동남아시아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 협약으로, 1950년 1월 콜롬보에서 열린 영연방회의에서 채택됐다. 당초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국가가 주도하였으나, 미국과 일본이 참가하면서 지원 대상국의 범위도 확대되었고, 지원은 자본원조와 기술원조로 이루어졌다.

주) 삼척탄좌는 공사의 총재가 설립추진위원회장을 맡고 이사가 삼척탄좌의 이사를 겸임하여 설립하였으나, 1963년 11월 정부 방침에 따라 해당 지분을 대한중석에 매각하고 매각 대금은 자본금으로 편입시켰다.

만kW급 발전소 1기를 건설하고, 향후 200만 톤으로 늘어날 저질탄의 생산에 대비해 2년마다 10만kW급 화력발전소 1기씩을 추가로 건설하여 10년 동안 50만kW 규모로 전력 생산을 늘린다는 대단위 계획을 수립하였다. 대부분의 발전을 수력에 의존하고 국내 총 발전량이 평균 20만kWh에 불과하던 당시로서, 이 같은 계획은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사업이었다.

발전소 건립은 1961년 3월 서독의 MAN & SIMENS 사와 5만kWh급 발전소 2기의 건립 계약을 체결하고, 5월 2일 영월군 하동면 정양리에 정양화력발전소 건설사무소



▲ 본사에서 탄좌연설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를 설치하면서 현실화 됐다. 그러나 1961년 7월 1일 한국전력이 설립되고 정부의 전력사업 일원화 정책에 의하여, 정양화력 건설업무는 그해 7월 11일 한전에 이관됐다. 한전은 공사의 발전소 건립계획을 인계 받아 1964년 부산화력을 비롯한 무연탄 발전소를 건립한다. 또한 공사가 추진하던 정양화력은 1965년 제2 영월화력 발전소로 완공을 보게 된다.

(2) 공사와 전업 합동론

공사가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던 당시, 한편에서는 공사의 조선전업 인수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동아일보 이동욱 논설위원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 바 있다.

요즘 석공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시끄러운 것이 전업회사와의 합동 문제일 것이다. 석

공에서 캐낸 석탄을 가지고서 화력발전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석공과 전업을 합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다.

즉 석공과 전업이 따로따로 별개의 회사로 있으니까 석탄을 톤당 7800환에 사다가 발전을 하지만, 만일에 석공과 전업이 하나의 회사로 움직이게 된다면 탄가를 그 생산비로써 간주하게 되니까 5천환밖에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석공과 전업과의 합동론의 근거인 것이다.

이 말은 전업의 적자를 석공의 흑자로써 매우자는 이야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 석공과 전업이 설령 합동이 된다 하더라도 발전용 탄의 가격을 따질 적에는 시가로 잡아 채산을 맞추어야만 건전한 기업회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지로는 5천환에 사고 있는 것이라도 그 시가가 7800환 할 적에는 7800환을 소요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7800환에 의해 원가계산을 해서 밑지는 것을 다른 면에서 합리화를 단행하여 비용을 절감 못한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기업인 것이다.

지금 전업이 석탄값을 7800환에 쓰고 있으면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탄가가 비싸서가 아니라 낭비와 부패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적자이므로 그 낭비와 그 적자를 깨끗이 잘라서 버리지 못한다면 설령 5천환에 쓰더라도 몇 달 뒤에 가서는 다시 적자로 되돌아 갈 것이니 그 낭비와 부패가 더욱 확대될 것은 뻔히 내다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업의 청소작업(일종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단행되지 못하고서 석공과 전업을 합동한다고 하는 것은 전업의 부패를 더욱 더 조장하는 것밖에 안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청소작업으로 이제야 겨우 기업으로서 기능을 옳게 발휘하려고 하는 석공마저 전업의 독소로부터 균의 전염을 피할 수 없게 하는 것밖에 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게 하는 것이 안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석공의 갈 길은 석탄을 캐는 기업으로서 일로 매진하는 데 있으니 발전까지 손을 대겠다고 함은 외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석공만 하나 옳게 끌고 간다고 하는 것도 그 맘모스성에 비추어서 쉬운 일이 아니거늘 발전까지 손대고서 힘이 안 떨릴 도리가 없는 것이다.

석공의 흥망은 이 나라 산업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석공의 전업과 합동론은 배척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3) 해외 인력 파견의 초석

1960년대 초 공사는 국내 광산근로자의 서독 파견을 추진함으로써 해외 취업의 문호를 열었다.

무연탄발전소 건립을 위해 독일을 방문한 김성호 총재는, 서독 탄광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음을 보고 한국 광산근로자의 취업 가능성을 타진했고,



▲ 열관리협회는 연탄 사용의 확산을 위해 주요 도시에서 주택난방 전시회를 개최했다.

1961년 4월 11일 서독의 지멘스(SIMENS)사와 광산근로자 파견 각서를 교환했다. 이 후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 사업은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어 1965년 5월 이후 해외개발공사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1977년까지 총 7936명이 서독 광산에 취업하게 된다.

광산근로자의 서독 파견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로선 독일에서 송금한 외화는 국내 가족의 생활향상뿐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또 독일에서 선진기술을 익힌 근로자들이 귀국 후 국내 석탄산업 기술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들은 ‘라인강의 기적’을 배워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뜻 깊은 일에 공사가 맨 처음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광산 근로자의 서독 파견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4. 석유의 도전과 시련(1967~1973)

가. 판매난 심화

석탄산업 철도의 개통과 정부의 적극적인 중산정책에 힘입어 전성시대를 구가하던 석탄산업은 1966년 가을에 발생한 연탄파동과 함께 침체의 늪으로 빠져든다.

정부는 가정용 연료의 안정공급을 이유로 에너지 정책을 석탄위주의 ‘주탄종유’

신탄 소비량			(단위: 천톤)		
연도	신탄 소비량	무연탄 환산	연도	신탄 소비량	무연탄 환산
1956	15,395	12,219	1961	13,400	10,635
1957	15,721	12,477	1962	12,747	10,117
1958	15,908	12,625	1963	12,240	9,714
1959	14,912	11,835	1964	12,320	9,778
1960	14,485	11,496	1965	12,223	9,701

에서 석유위주의 ‘주유종탄’으로 전환하였다. 무연탄발전소의 연료는 병기C유로 전환되고 정부가 조달하는 관수용 무연탄도 석유로 대체하는 등 가정용 이외의 석탄 사용을 금지했다.

정부의 연료정책이 이 같이 석유를 중심으로 돌아서게 되자 석탄 수요는 격감했고 판매난을 이기지 못한 일부 탄광은 폐광의 길로 들어섰다. 1967년 2백여 개에 달하던 탄광은 2년만에 50여 개로 줄어들었다. 20년간 증가일로를 달려온 석탄생산량은 1967년 1244만 톤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69년에는 1017만 톤으로 줄어들었다.

공사의 상황도 그와 함께 침체되어갔다. 그 동안 산업용탄을 위주로 공급해왔던 공사의 시장이 정부 정책에 따라 사라졌다. 대형 민영탄광들처럼 연탄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어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판매난은 갈수록 심화되어 1966년말 22만 톤이던 저탄은 1967년말 60만 톤으로 늘어났고, 경영은 적자로 돌아섰다. 1967년 이후에는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더구나 1967년에는 광업진흥공사가 설립되어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업무가 그곳으로 이관되었다. 공사의 입지는 축소된 반면, 민간이 개발에 실패한 나전탄좌와 성주탄좌를 정부의 지시로 빚을 얻어가며 떠안게 되면서 경영은 더욱 악화되었다.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힘겨운 노력이 계속됐다. 1967년 12월 전국 74개 도시에 판매대행점을 설치하고, 1968년에는 연탄보급이 이뤄지지 않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분구(아궁이)개량 사업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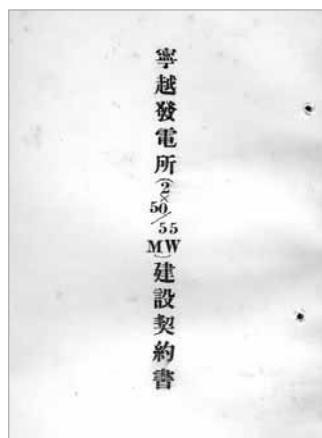
1970년에는 그동안 중단했던 대일 무연탄 수출을 재개하는 등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러나 생산량은 1966년 470만 톤에서 1972년 381만 톤으로 줄어든 반면, 저탄량은 계속 증가해 1972년에 이르러는 3백만 톤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공사는 동경 올림픽 준비를 위해 설치했던 체육팀을 해체하고, 서소문 사옥 매각, 기술연구소 폐쇄, 인력점검 시행 등으로 비용 절감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수익 증대를 위해 1967년 '은성 코크스공장 건설'과 1968년 '산탄지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정책적인 제약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가 이루되지 못함에 따라, 1972년 3월에는 '석공의 당면 문제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972년에 영월을 폐광하고, 1973년에는 나전과 성주를 휴광하게 된다.

나. 신규 광구 매입 개발

(1) 매입 상황



▲ 공사와 MAN&SIMENS간 체결된
정양화력발전소 건설 계약서

공사는 매년 470만 톤의 생산량을 유지하여 향후 전국 생산량의 50%를 점유한다는 계획 하에, 1967년 6월과 7월 나전탄좌와 성주탄좌를 매입하고 12월에는 호남탄좌의 일부 광구를 매수하여 현물로 투자했다.

- **나전** : 1962년 12월 광업조성자금 1427만원을 융자받아 1963년 탐사를 했으나 휴광 중인 탄광으로, 1996년 12월부터 매입이 추진되어 1967년 6월 26일 1억 8천2백만원에 매입됐다.
- **성주** : 1963년 1월 설립된 성주탄좌개발주식회사에 의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자금부족으로 정상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1965년부터 정부 지시에 따라 공사와 대한탄광(주)이 공동 관리하던 탄광으로 1967년 7월 24일, 4억 7천만원에 매입됐다.
- **호남탄좌** : 1967년 9월 광업권을 매입하여 현물출자 하라는 상공부 지시(상광정 1341-498)에 따라 1개 광구(등록번호: 22026)를 577만원에 매입하여 1968년 1월에 현물출자한다.

(2) 인수 배경

신규 광산과 광구의 매입은 외형상으로는 상당한 명분을 갖추고 있었다. 공사가 개발 중인 6개 광업소 중 5개는 30년 이상 된 노후광산으로 생산량 유지가 곤란하므로, 공사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광산의 매입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공사 자율로 이뤄지지 않고, 매입 시기와 대상까지 모두 상공부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빚고 말았다.

판매난과 자금부족으로 경영이 적자로 전환되어 임금체불까지 발생된 상황에서, 굳이 신규 광산을 은행으로부터 빚을 얻어 매입할 필요는 없었다. 이는 막대한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된 민영탄좌가 제대로 생산도 해보지 못하고 폐광될 위기에 직면하자 정부가 정책적인 목적에서 매입을 지시했고 공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 안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인수 후 나타난 생산실적과 생산원가만 살펴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난다.

(3) 인수 결과

나전, 성주탄좌의 매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연탄파동 이후 어려움을 겪던 공사의 경영에 도리어 부담만 안겨주었다. 생산은 계획대로 수행되지 않았고 생산원 가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공사는 더 이상의 경영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1972년 영월탄광을 폐광했고, 1973년 나전과 성주마저 휴광하기에 이른다. 호남탄좌 역시 투자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 소멸되고 만다.

다. 경영합리화 모색

(1) 경영합리화위원회 설치

적자폭이 늘어나자 공사는 1967년 9월 12일 '경영합리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혁신의 묵상을 찾고자 하였다. 위원장은 총재가 맡고, 부위원장은 부총재로 하여 위원, 이사, 감사, 자금관리인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의 규정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경영혁신을 위한 기본적인 목표 설정 ② 관리기법의 향상을 위한 지침수립 ③ 경영합리화 작업을 위한 순위 결정과 각 부서간 기능의 설정 및 조정

위원회의 개최와 함께 경영합리화는 각 방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1967년



▲ 서독파견 광부 제1진이 출발에 앞서 김포공항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12월 전국 74개 도시에 판매대행점을 확대 설치하여 판매활동을 강화하고 1968년 농촌지역의 분구(아궁이) 개량사업을 지원한 것도 궁극적으로 석탄 사용의 확대를 유도하여 공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한 것이었다. 1970년에는 중단되어 있던 대일 무연탄 수출을 재개하는 등 새로운 시장의 개척도 모색했다.

또한 1971년 5월 태창호와 태성호를 새로이 구입하여 과다한 선박 운영비가 소요되던 장성호, 도계호, 화순호 등 노후선박과 대체함으로써 해상운송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비용 절감을 꾀했다.

파격적인 인원감축도 단행했다. 1970년 초 인력과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각개 접호까지 취하며 뼈아픈 감원을 실행한 결과, 1971년 1만5788명이던 직원이 1973년에는 1만1334명으로 감소하였다.

(2)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

경영합리화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난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결손의 누증, 자금상의 압박, 무연탄 판매 부진 등이 계속되면서 경영정상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공사는 1972년 3월 석공의 당면문제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을 수립하여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른다.

공사는 1972년도 적자를 약100억원(99억8천8백만원)으로 추정하고 그 적자 요인에 대한 시정 및 정부보전을 요청했다. 당시 지적된 적자 요인은 대부분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①탄가의 비적정성 ②심부화와 운반거리 연장에 의한 능률저하 ③차입금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④경제성이 무시된 불량광산 및 막장 개발 ⑤원거리 수송과 해상수송 담당에 따른 비용 과다발생 등 다섯 가지였다.

공사는 이의 시정을 위해 ①450만톤 생산계획을 4백20만톤으로 축소 ②성주, 나전의 저질탄 생산 억제 ③7개 저탄장의 폐쇄 및 판매대행점으로 대체 ④외상판매 허용(45일 은행지급보증판매) ⑤영월광업소 정비 ⑥생산유지자금 33억5천만원 신규융자 ⑦누적결손 보전을 위해 23억원 추가개정 예산에 반영 ⑧미불입 자본금 10억1천만원 불입 ⑨탄가인상 ⑩석공법 개정(100억원인 자본금을 200억원으로 증액하고 결손액을 정부가 보전하여 주도록 하는 등) ⑪수익성 있는 관련사업(발전소, 코크스 공장, 주물공장 건설 등)의 허용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73년도에 첫째, 단기차입금 46억1천8백만원을 자본금으로 완전 대체하고 둘째, 36억5천1백만원의 결손을 보전하며 셋째, 신규광구 매입 등이 충실히 이루어 진다면, 1974년 말에는 공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것임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공사의

건의사항중 정부지원 사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영월, 나전, 성주탄좌의 정리가 이루어지는 데 그치고 말았다.

(3) 석공 장기경영 개발계획에 대한 조사 연구

경영합리화의 추진과 대 정부 건의에 이어 합리적인 운영개선책 모색을 위하여, 1972년 8월 공사는 한국산업개발연구소(KIST)에 공사의 장기경영개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의뢰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석탄산업 경영기반 강화시책에 부응하여 공사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흑자전환과 장기적인 운영체제 구축이 그 목적이었다.

세부적인 조사 결과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나 연구 의뢰서에 나타난 바로는 자금, 투자, 생산, 경영개선 방안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조사 연구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KIST의 연구는 공인된 사외기관에 의한 진단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는 1973년 이후 공사의 경영에 일부 반영되었다.

[조사 연구 의뢰 항목]

1. 생산기반·현황과 경영실적 추이의 종합분석
2. 경영개발 및 운영합리화 기본 방향과 장기목표의 설정
3. 연차별 생산목표 및 경영규모의 설정
4. 생산기반의 장기투자 개발 계획
5. 연차별 경영합리화 자료설정과 부문별 경영개선 계획
6. 장기손익 추정과 자금운영계획

국내 석탄생산량과 공사 손익

연도	생산량(천톤)			공사 손익(천원)
	계	석공	민영	
1966	11,613	4,705	6,909	-197,641
1967	12,436	4,714	7,722	-1,345,299
1968	10,242	4,256	5,986	-1,081,333
1969	10,173	4,041	6,132	-1,500,188
1970	12,394	4,454	7,939	-2,331,981
1971	12,786	4,306	8,480	-2,859,132
1972	12,404	3,810	8,594	-2,916,489
1973	13,571	4,245	9,326	-296,499

7. 장기 사업운영체계 전환 방안 연구

라. 경영다각화 사업 추진

(1) 코크스공장 건설

공사의 기술연구소는 1964년 3월 국내탄을 이용한 코크스 제조 연구에 착수, 2년 5개월간의 연구 끝에 성공하여 마침내 1967년 7월 발명특허를 획득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코크스를 국내탄으로 대체한 역사적 쾌거였다. 1968년과 1969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의 유명기업에 의뢰한 결과, 국내산 코크스는 성능과 경제성 면에서 수입 코크스보다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외화절감과 경영개선의 돌파구로 공사는 이 기술을 활용키로 하고 1969년 5월 은성 코크스 제조공장을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연간 6만 톤 생산규모의 코크스 공장 설계까지 마친 단계에서 은성 코크스 제조공장의 건설은 중단되고 만다. 정부가 공사에서 신청한 건설예산을 싹감한 결과였다.

1971년 4월 공사는 이 문제를 정부에 다시 보고하는 등 코크스 제조 사업계획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1973년 정부가 “석공은 석탄 생산에만 주력하라”는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결국 취소되기에 이른다. 이 기술은 그 뒤 1976년 (주)삼천리에 의해 상업화되게 된다.

(2) 화력발전소 건립 추진

생산량 비교

(단위: 천톤)

연도	생산계획				실제 생산량			
	기존탄광	나전	성주	계	기존탄광	나전	성주	계
1968	4,140	240	320	4,700	4,149	24	83	4,256
1969	3,690	420	400	4,510	3,985	4	52	4,041
1970	3,340	420	480	4,240	4,315	13	126	4,454
1971	3,340	420	480	4,240	4,069	37	200	4,306
1972	3,340	420	480	4,240	3,633	46	131	3,810
1973	3,080	420	480	4,160	4,206	10	29	4,245

주)생산계획: 인수를 결정하기 위한 서류에 포함된 향후 생산계획

판매부진에 의한 누적된 저탄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는 1960년대 초에 추진한 바 있는 무연탄 화력발전소 건립을 다시 추진하였다.

1968년 8월 우선 기술연구소에서 산단지대 화력발전소 건립 기본계획 조사에 착수했다. 안전하고 고정적인 시장확보를 통해 판매를 증대함과 동시에 저질탄의 활용, *석탄연소 효율의 증대, 석탄 수송비 절감 및 잉여 수송능력 대체 활용 등이 그 목적이었다.

11월에는 일본 마루베니(紅丸) 회사에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주며 무연탄 화력발전소 건립의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이 사업 또한 정부의 발전사업에 대한 한전 일원화 방침으로 좌절되고 만다.

독일의 경우는 석탄산업 합리화 과정에서 발전소와 탄광의 합영개발을 추진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러한 선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공사의 화력발전소 건립이 두 차례나 좌절되고 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생산원가 비교

연도	생산 원가(원/톤)		
	나전	성주	공사 전체
1968	2,812	2,165	2,446
1969	6,707	3,103	2,823
1970	7,524	4,747	3,190
1971	6,003	3,871	3,746
1972	7,022	4,309	4,497
1973	11,576	6,485	4,035

마. 장성 제1수갱 건설과 광산 현대화

경영여건은 비록 어려웠지만, 1950년대 말부터 추진된 장성 제1수갱의 준공은 장성뿐만 아니라 공사 전체의 활력소가 되었다. 특히 수갱 건설과 함께 새로운 장비와 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광산근대화의 일대 혁신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1) 추진 경위

수갱 건설은 영국의 원조기관 P.D.T.S(Powell Duffryn Technical Service) LTD에 의



▲ 1967년 인수하여 개발한 성주광업소

해 처음 제안됐다. P.D.T.S는 전후 탄광복구와 근대화를 위한 기술원조를 위해 1954년 8월부터 1958년 12월까지 공사에 상주하고 있었다. P.D.T.S의 제안이 있은 뒤 공사는 1959년 4월 PMC(Pierce Management Corporation)와 장성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수생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1959년 12월 P.M.C가 작성한 장성탄광개발 계획서에는, 간외에 케이지와 스HIP을 분리하여 2개의 수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4.19혁명의 불발로 중단되었다.

이후 공사는 '태백산 계획'이라는 이름 하에 의욕적으로 수생 건설을 단독 추진하였다. 공사는 두 개의 케이지 시스템을 갖추는 계획안을 작성했으며, 1961년 3월 P.M.C.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계획서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 또한 5.16혁명으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다.

(2) 건설 과정

수생 건설은 5.16 이후 재차 추진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산정책에 힘입어 이번에는 수생 건설뿐만 아니라 광업소의 현대화까지 함께 추진되었다. 수생 건설자금은 AID로부터 지원 받고 나머지 광산현대화 사업비용은 서독차관으로 충당키로 했다. 마침내 1963년 6월, 950만 달러의 AID차관 도입 결정이 나고, 1964년 4월 서독재건은행과 우리 정부간에 2천만 마르크에 대한 서독 차관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두 차례의 불발로 그칠 뻔 했던 수생 건설은 드디어 실행되게 되었다.



▲ 부산에서 거행된 태창호, 태성호 명명식 광경

1963년 12월 AID 자금이 도입됐고, 이듬해 5월 제1수갱의 기공식이 있었다. 그러나 수갱 건설은 이미 확정된 사안인 만큼, 내부적으로는 이미 1962년 1월부터 수갱 굴하를 위한 기초 공사에 착수해 있었다. 1962년 7월에는 '수갱공사추진위원회'라

주)각개점호: 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기록과 대조하여 등록을 받았다.



▲ 박경원 총재가 제1호로 각개점호를 받고 있다.

는 전담기구까지 설치했다. 이 기구는 후일 '장성개발추진위원회'로 변경되어, 수갱 건설은 물론 장성광업소 현대화 프로그램 전반을 다루게 된다.

(3) 광산 근대화 실현

장성 제1수갱 공사는 자금공급의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1969년 4월 25일 준공되었다. 외자 961만 달러와 내자 7억9천만 원을 들여 내경 6.2m, 길이 696m에, 케이지는 3단으로 하고 20톤 용량의 스킵이 설치됐다.

탄광현대화 사업들도 수갱 준공에 즈음하여 완결됐다. 종래 목조로 돼있던 선탄장이 철골 구조의 현대적 선탄장으로 개선됐고, 운탄체계의 현대화를 위해 철암 전차갱도에 콘베이어를 설치했으며, 3톤 광차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각종 장비는 대형화된 신장비로 대체되었으며, 중앙 목욕탕도 설치되어 근로자들은 더 이상 작업복을 입고 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러한 탄광현대화 사업의 추진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최고의 광업소로 자리 잡은 장성은 국내 석탄산업의 메카로서 현대화된 위용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공사의 사정은 수갱의 준공을 대대적으로 축하할 만큼 밝지는 못

하였다. 수갱을 통해 쏟아져 나올 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정도로 산지에는 저탄이 적체되었고, 경영여건도 창립 후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고 있었다.

5. 제2의 도약(1974~1986)

가. 증산보국

연탄파동 이후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던 국내 석탄산업은 의외의 사건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1973년 10월과 1978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세계를 강타한 석유 파동은, '자원주권' 또는 '자원 내셔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 내며 자국 내 에너지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주었다.

"싸고 편리한 에너지를 수입해서 사용하면 그만"이라던 경제논리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그 대신 '증산보국'의 소리가 높아졌다.

유가가 급등한데다 조달 자체도 어렵게 되자 정부는 1974년 1월 14일 긴급조치 제3호를 발령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석탄증산정책을 추진하였다. 석탄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고, 1973년부터 동결됐던 석탄가격을 51.3%나 인상한 것이다.

석탄 수요의 급증으로 판매도 급증했다. 그 동안 경영난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325만 톤의 재고탄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다. 파격적인 가격인상까지 이루어지면서 공사의 경영은 7년간의 오랜 적자에서 탈피하여 1974년에 16억원, 1975년에는 23억원의 역대 최고의 흑자를 기록하기에 이른다.

이 때에 공사는 정부의 증산정책에 호응하여 '흑자 경영의 실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증산체제 확립'의 가치를 내걸었다. 1974년 말 공사는 석탄증산 추진을 위한 '석공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에 따라,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문을 닫았던 영월, 나전, 성주를 다시 개광하고, 1976년에는 화성까지 인수하여 증산에 주력했다. 또한 채탄법의 개선과 장비의 현대화 및 제2수갱 건설 등으로 장기개발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1973년 425만 톤이던 생산량은 1982년 500만 톤을 넘어서고 1986년에는 522만 톤으로 늘어났다.

공사의 기능과 역할 또한 더욱 확대되었다. 1975년부터 시행된 석탄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1978년부터 무연탄 수입업무를 공사가 수행하고, 1983년에는 정부비축사

업, 1985년에는 광산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까지 담당하게 된다.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한 1973년 말부터 1986년까지 공사는 석탄증산을 통해서 에너지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수호하고 가정용 연료의 수급안정을 이루하였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채탄법 개선과 장비의 현대화, 제1수갱 연장과 제2수갱 건설 등으로 장기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각종 시설을 개편하고 새로운 후생복지 제도를 실행하였다.

뜻하지 않던 석유파동으로 인해 시작된 이러한 호황은 공사에 제2의 전성기를 열어주었다. 이후 15년간의 호황을 누리며 공사는 국가의 에너지 위기 극복에 중추적 역할을 다하게 된다.

나. 석탄증산 3개년계획

(1) 개요

석유파동으로 흑자전환을 이룩한 1974년 말, 공사는 '석공발전 3개년 계획(1975~1977)'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였다. 3년간 399억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신규광산을 매입 개발하여, 1974년 현재 전국 생산량의 29%를 차지하는 석탄의 생산을 1977년에는 50%선으로 끌어올려 연간 950만 톤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계획의 골자였다.

계획 수립 당시 공사는 민간소유 신규광구의 매입이 용이치 않을 것이라는 점과, ADB차관 등 투자예산의 적기 확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개발이 부진한 민영탄광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 명령을 발동하여 공사가 대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투자재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2) 세부 내용

(3) 결과

정부의 석탄증산 정책에 부응하여, 견실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체제 개선을 시도하고자 했던 이 계획은 결국 성공으로 끝나지 못했다. 계획 수립 당시 우려했던 대로 투자자금 확보와 신규광산의 매입 실패, 정부의 지원 부족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노후장비 대체, 탐단 강화, 채탄법 개선, 복지시설 증설 등은 단계적으로



▲ 공사 기술진에 의해 개발된 국내탄을 이용한 코크스

주) 발전용이 가정용보다 열효율이 높으므로 석탄의 이용면에서 보면 발전용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시행되어, 1970년대 고도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다. 개발구역 확대

석탄증산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자 공사는 종전에 경제성 문제로 문을 닫았던 영월, 나전, 성주를 재개발하고, 1976년에는 화성탄광을 인수하여 개발을 시도했다. 또한 1982년에는 정부의 권유에 따라 이양탄좌에 투자하는 등, 적자 운영이라는 회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석탄증산에 매진하여 에너지 극복을 위해 노력했다.

(1) 영월 재개발

영월은 창립 초기부터 생산부진과 적자운영으로 경영에 부담을 안겨주어, 1958년 이후부터 줄곧 정부에 운영사업체 지정 해제를 건의하여 온 광산이다. 그러나 정부의 중산정책에 따라 공사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해 오다가, 연탄파동 이후 경제적 생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72년 9월 폐광하였다.

석유파동 이후 다시 석탄증산이 시급해지자 1975년 1월부터 재개발에 착수하면서 조광으로 운영됐다. 1980년 3월 조광 계약 만료에 즈음해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발에 나서서 직영개발체제(사외도급)로 전환했다. 이후 1981년 13만 톤의 실적을 올리는 등 1990년 폐광할 때까지 연 평균 1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였다.

공사는 또한 증산을 위해 1976년 2월 19일 영월 회동광구 인근에 위치한 해동광구(4개 광구)를 매입하였으나 실제 개발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2) 나전 · 성주광업소 재개발

나전과 성주광업소는 1967년 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매입하였으나, 원가상승과 적자운영으로 1973년 3월 휴광에 들어갔던 곳이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정부의 석탄증산정책에 발맞춰 성주와 나전도 재개발에 착수했다.

나전은 1974년 1월 함백광업소 나전지소로 다시 문을 연 후, 12월 20일 공사 직영의 나전광업소로 바뀐 뒤 재개발에 들어가 1980년대에는 20만톤까지 증산하였다.

성주는 1974년 1월 재개발되어 1983년 2월 일부 직영 개발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주로 조광에 의해 개발되었다.

(3) 화성 인수 개발

1976년 6월 공사는 경매를 통해 화성광업소를 매입 인수했다. 화성은 1968년 화성 탄광주식회사(대표 허륜)에서 인수해 개발해오다가, 1973년 5월부도로 인해 휴광된 곳이다. 주 채권자인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공사는 정부의 권유에 따라 1억6천만원의 채권확보를 통해 응찰하였다.

공사는 이를 매입한 후 1976년 11월 화성광업소를 설립하고, 1977년부터 사외도급으로 생산작업 및 탐탄작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주 작업구역인 본광구의 배수수준(17ML) 상부는 이미 채진되었고, 광구가 산재돼 있어 통합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적자운영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에 따라 1981년 조광으로 전환하였다.

(4) 이양탄좌 투자

공사는 1968년 1월 호남탄좌 설립 시 정부의 권유에 따라 화순 금강구를 현물출자하여 탄좌 설립에 적극 관여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탄좌 설립이 실패로 끝나자 1982년 정부는 이양탄좌 설립을 추진하며 공사의 참여를 종용하였다. 이에 공사는 일단 적극 참여하였으나, 탄층이 빈약하여 본격 개발되지는 못하였다.

(5) 해외 무연탄광 개발 시도



▲ 제1수갱 준공식

국내 석탄공급의 증대를 위해 해외 무연탄광에 대한 개발도 추진되었다. 공사는 1974년 6월부터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동남아 지역에 기술진을 파견, 해외석탄 개발을 추진했다. 1978년 11월에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의 무연탄 개발을 위해, 공사의 기술진이 '움실루메' 탄광을 탐사하고 '셀록' 사와 개발 추진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무연탄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위험부담이 높은 이러한 해외개발 계획은 취소되고 만다.

비록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해외 석탄개발의 효시로써 1980년대 본격적인 해외 자원개발 시대의 기원이 되었다.

라. 시설투자 활성화

(1) 장비 현대화

'석공발전 3개년계획' 달성을 위해 공사는 1975년 4월 정부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1976년 5월 3일, 1천2백만 달러의 ADB차관 도입 협정이 체결되고, 동 자금에 의한 새로운 장비가 속속 도입되면서 장비의 대형화 및 현대화가 실현됐다. 당시 ADB 차관에 의한 도입된 장비는 5차에 걸쳐 모두 162종에 달했으며, 이러한 신장비들은 채탄법 개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1970~80년대 석탄증산의 기반이 되었다.

(2) 제2수갱 건설

장성광업소의 심부 개발사업은 ADB 차관이 결정되면서부터 검토되었다. 공사는 차관의 일부를 이용하여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1977년 7월, 공사는 영국의 PD-NCB와 1년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978년 8월 제2수갱 건설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1980년 8월 영국의 BMC와 제2수갱 건설을 위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며 가시화 되었다.

장성의 심부 개발계획은 기존 696m인 제1수갱을 310m 연장하여 1006m로 늘리는 공사와 970m 제2수갱을 신규로 건설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2개의 공사는 동시에 추진되었다.

1981년 7월 장성 제1수갱 연장분 기공에 이어 10월에는 장성 제2수갱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이미 제1수갱 건설의 경험에 있었고 제1수갱 연장분 시공과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2수갱의 건설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1985년 9월 15일 제1수갱 연장분이 준공되고, 10월 10일 제2수갱이 준공되었다.

총 투자비 444억원이 소요된 제1수갱의 연장과 제2수갱의 준공으로 장성광업소는 OML 하부의 계발이 가능해졌으며, 명실공히 국내 최대 최고 광업소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3) 고도성장을 향한 건설붐

석유파동 이후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공사 내에 불어닥친 건설 붐이었다. 1974년 3000세대의 근로자 사택 증설에서부터 시작된 건설공사는 새마을회관, 목욕탕으로 확산되었고, 여의도 사옥 신축 이후 각 광업소의 본관과 사업소 사무실이 새로 건립되어, 현장에 남았던 일제의 건축물들이 모두 현대식으로 개편되었다.

사실 창립 이후 20여 년간 대형 공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초창기에는 경영적자와 민영화 등으로, 1960년대는 석탄증산에 총력을 기울이느라고, 그리고 연탄파동 이후

성장기의 경영상황(1974~1986)

(단위: 천원, 천톤)

연도	자본금불입	생산	판매	인원(명)	당기손익
1974		4,410	4,561	11,619	1,562,709
1975		4,574	4,319	12,260	2,334,052
1976		4,617	4,613	12,576	-3,263,995
1977	2,000,000	4,508	4,513	12,815	-4,039,919
1978	2,500,000	4,672	4,702	13,416	-4,541,440
1979	10,000,000	4,702	4,980	13,299	-10,505,690
1980	10,000,000	4,786	4,774	12,935	-2,626,110
1981	13,000,000	4,883	4,843	13,891	1,508,259
1982	12,880,000	5,006	4,689	13,739	838,178
1983	12,750,000	4,863	4,897	13,071	730,035
1984	12,750,000	4,953	5,108	13,856	584,041
1985	9,800,000	5,056	4,998	13,875	691,383
1986	6,800,000	5,218	5,170	13,944	416,433

에는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사택과 사무실은 대부분 일제가 남기고 간 것을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다 석유파동 발생으로 중산이 시급해져 인원과 기능이 확대되자, 노후된 기존 시설에 대한 대단위 공사가 일시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974년에서 1986년까지 19년간 6400세대의 사택이 건립된 것을 비롯하여 각 광업소에 본관, 목욕탕, 새마을회관이 새로 건립되었고, 1975년 여의도 사옥, 1985년 태백훈련원, 1986년 백암연수원과 임무소 사옥, 1987년 부산지사의 사옥까지, 대한석탄공사의 현장에는 제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대형 공사가 그치지 않았다.

마. 기능과 역할 확대

(1) 무연탄 수입

석유파동 직후 정부의 무리한 증산정책은 저질탄의 생산을 증가시켰고, 이는 연탄의 품질을 떨어뜨려 사회적 문제를 유발했다. 정부는 양질의 석공탄을 전국의 연탄 공장에 배정하여 연탄의 질을 유지하려 했으나 저질연탄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국내 생산 부족분을 보충하고 석탄증산의 불가피한 결과물인 저질탄을 활용하기 위해, 고열량의 외국산 무연탄의 수입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무연탄 수입은 1978년부터 시작되어 초기에는 용도에 따라 3개 기관에서 수입 업무를 담당하였다. 연탄제조용은 공사에서 수행하고, 발전용 탄은 한국전력이, 비축용 탄은 조달청에서 수입했다. 그러다가 1982년 정부는 전문성을 감안하여 수입창구를 공사로 일원화하였다.

무연탄 수입 업무를 위해 공사는 1979년 목포사무소와 인천지사를 신설하고,

석탄증산 3개년계획
(단위: 만톤)

연도	현행계획	자체광구 개발시	신광구 매입시
1975	450	495	500
1976	461	554	700
1977	473	618	950
투자액(억원)	103	249	399

1981년에는 미국지사와 본사에 수입부를 설치하였으며, 1994년까지 2천4백만 톤의

부문별	기본 방침	사업 목표
생 산	자체보유 기개발 광구의 최대한 확대 자체보유 미개발 전구역의 집중 탐단개발 신규광구의 매입 개발	생산 : 21,500천톤 탐단 : 굴진 27,730m, 시추 22,950m 광구매입 : 15개 지역
수 급	수급의 안정을 위한 비축탄 증대 해송력 강화를 위한 선박 확보 목호항의 적재능력 보강	공급 : 20,401톤 수송 : 육송 21,401천톤, 해송 4,302천톤 석탄비축(77년말) : 1,500천톤 선박도입 : 2척
인 사	우수한 관리자 및 기능공의 정기적 확보 교육훈련의 강화로 직원의 자질향상 실력 및 성과 위주의 인사제도 확립	관리자 확보 : 300명 기능공 확보 : 600명 교육훈련 : 3,580명
안 전	신규 보안장비의 도입 보강 갱내가스 중앙감시시스템 설치 시청각교육 강화로 교육효과 제고	보안장비 도입 : 772종 가스중앙감시 시스템 : 76.3/4~77 교육기재 구입 : 23종
복 지	부족사택 신축으로 입주율 향상 종업원 자녀 장학기금 확대 종업원 생활개선을 위한 소득사업 유치 공동구매 및 소비조합 설치 운영 종업원복지기금 설치 운영 종업원 체력향상 및 협동정신 고양	사택신축 계획 : 4,750세대 장학기금 : 3억원 복지기금 : 3.6억원 소비조합 설치 : 5개소 가내부업 유치 : 3개소 합창단 운영 체육대회 개최 : 연 2회
장 비	노후장비의 효율적인 보수로 최대 활용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된 노후장비의 집중 교체 장비의 대형화 및 현대화 추진 중앙제조창 설치로 자가제작공급체계 확립	노후장비 교체 : 2,211대 중앙제조창 설치 : 75. 4/4~76년 장비대형화 : 75. 1/4~77년
물 자	갱목자원의 확보를 위한 입목 및 임야 매수 갱목, 장기안정 공급을 위한 조립사업 확대 대용지보(P.S.C) 제작 공급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통한 물자관리 철저 소비절약운동의 계속 추진	갱목공급 : 263,800m ³ 조립 : 9,000,000본 P.S.C 제작공급 : 9,000set/연
기 술	채탄법의 개선 작업장의 환경개선 무연탄 코크스의 제조연구 및 공장건설	장벽식 채탄법 : 75. 1/4~77. 4/4 Top Slicing 채탄법 : 75. 3/4~77. 1/4 갱내통기 개선 : 1차 장성, 2차 도계, 3차 합백, 화순, 은성 코크스 제조공장 건설 - 생산규모 : 150천톤/연 - 생산시기 : 77년 2/4

무연탄을 수입하여 공급하였다.

(2) 정부 비축사업 담당

제1차 석유파동의 영향이 다소 진정된 1975년, 정부는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그 동안 공사에 일임하다시피 했던 수급조정업무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

정부는 1976년부터 국내탄의 비축을 시행하였고, 1979년 수입 무연탄의 비축도 시행하였다. 1982년 말 이상난동에 의해 연탄 소비가 감소되자 비축은 더욱 본격화되었고, 저탄량 증가에 따른 별도의 저탄장 설치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1983년 공사는 무연탄 비축탄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정부비축은 초기에는 수색과 옥마 등 공사의 저탄장만으로 충분하였으나, 저탄량이 증가됨에 따라 1980년 인천에 수입탄 비축장을 신설했고, 1983년에는 강릉과 석항, 1987년에는 와룡비축장 등을 설치했다.

(3) 근로자교육 담당

197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중동건설 붐으로 수많은 근로자들이 해외 취업에 나서게 되자 국내 석탄산업에는 인력난이 발생했다. 게다가 기능인력의 부족이 각종 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며 정부는 탄광 기능인력 양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재해예방과 능률향상의 차원에서 쟁내 근로자 채용시 최소한 1년 간의 보안교육과 실습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국내 석탄산업의 경우 공사가 운영하는 훈련원을 제외하고는 광산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석탄증산과 재해예방을 위한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 1980년 3월 충북 청천에 광산공고를 설립함과 동시에 태백훈련원 건립을 추진하였다. 공사는 이러한 정책에 호응하여 광산공고 설립에 2억3천만원을 출연하는 한편, 1985년에는 태백훈련원을 건립하여 탄광의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바. 후생복지 증대

석유파동 이후 석탄증산 정책의 급속한 추진과 함께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본격화되었다. 1973년에는 오랜동안 미뤄왔던 임금인상도 이루어져 급여수준이 정상화

되고,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들이 신설되었다. 특히 주거환경의 개선과 학자금 지원제도, 백암연수원의 건립은 후생복지제도의 신기원을 열게 된다.

(1) 주거문화 개선

지속적인 사택 건설로 근로자의 주택난이 해결되어 1980년대 말에는 거의 모든 직원에게 사택이 공급되게 이른다. 사택의 질적인 면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1975년 종전의 목조 연립이 연립 사택으로 대체되었고, 1978년 장성과 도계에 처음으로 아파트가 건립된 것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5층 아파트로 발전하였다.

(2) 학자금 지원

1974년 사내에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직원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민영탄광으로 확산되어 석탄장학회 설립의 기초가 되었고, 일부 소수에게만 주어지던 장학금이 1980년 이후에는 모든 자녀에게 지급되어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3) 휴양소 설치

공사는 1986년 6월 총 11억 원을 투자하여 60개의 객실을 갖춘 백암 연수원을 건립했다.

개원 첫해인 1986년 6천여 명이 이용했고 1987년에는 1만 5천명이 이용한 백암연수원은, 연중무휴로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비에서부터 식비까지 일체의 비용을 공사에 부담했다.

한편 공사는 백암연수원 건립에 앞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강릉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하여 여름철 한달 동안 직원들의 체력단련장으로 운영하였다.

6.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1987~2000)

가. 제2의 창립준비



▲ 화성광업소 본관

석유파동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중산정책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던 국내 석탄산업은, 1986년 1월 석탄산업법의 제정을 기점으로 구조조정기에 접어든다. 국제유가의 안정, 소득증대에 따른 청정연료의 사용 확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연탄사용 제한조치 등으로 석탄의 수요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석탄산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시각에도 변화가 일고 있었다. 에너지 위기로 석탄증산이 절박했던 시절은 잊혀지고 다시 경제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석탄에 대한 종전의 최대 개발정책을 철회하고 합리적 개발로선회한 정부는, 1988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를 추진하기에 이른다.

증산을 지원하던 정부가 정책적으로 폐광을 지원하는 쪽으로 돌아서며 1987년 363개에 이르던 석탄광은 10년만에 11개로 감소했고, 2430만톤에 이르던 국내석탄 생산량은 5백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다.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의 감소는 더 가파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1987년에는 전체 가구의 82%가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했으나, 10년 뒤인 1996년에는 5.6%로 감소하여, 매년 20~30%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도 1988년 8월말 합리화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에 이른다. 조직을 개편하여 판매를 강화하는 한편 비경제 탄광에 대한 폐광을 서둘렀다. 이에 따라 1990년 영월과 나전, 성주를 정리하고, 1992년 화성, 1993년 함백에 이어 1994년 은성을 정리했다.

1992년에는 자본금을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증자하고, 판매증대를 위해 판매추진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한편,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해외 유연탄 개발사업, 골재사업 등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영합리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도

ADB차관 주요 기자재 도입내역

품목	주요 도입 장비	총금액(U\$)
광산장비 및 시설	로카쇼벨, 권양기, 시추기, 압축기, 전기기관차, 콜픽, 오가드릴, 수압식 지주, 링크바, 방폭형 축전차, 2룸 점보드릴, 에어무버, 선풍기, 국부선풍기 외 100종	9,986,811.69
안전장비	자기구명기, 산소구명기, 산소측정기, 메탄가스 검정기 외 42종	1,176,137.61
부분품	록카쇼벨 모타, 카풀라 등 2종	203,817.20
계	162종	11,366,766.50

일단 시양화 길로 들어선 석탄경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93년부터 1994년 10월까지 광진과의 통폐합, 한전에 흡수합병, 한보에 매각 등의 회오리가 거세게 몰아치면서, 공사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5년 정부의 석탄산업 종합대책과 공사의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노력을 통해, 50년 역사를 굳건히 지켜왔으며 이제 21세기를 맞아 제2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나. 비경제 탄광 폐광

정부의 석탄정책이 종전의 최대한 개발에서 경제성에 중점을 둔 합리적 개발로 전환되며 공사는 석탄의 증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유지해왔던 비경제적 탄광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였다. 1990년 영월과 나전광업소의 *매각과 성주의 폐광을 시작으로 1992년 화성, 1993년 함백, 1994년 은성을 폐광하여 9개의 광업소를 3개로 축소했다.

(1) 영월

영월은 1972년 휴광되었다가 1974년 석탄증산이 시급해지며 다시 조광으로 재개발되었고, 1980년부터는 사외도급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1989년 11월 매각 방침이



▲ 제2수갱 건설 장면

결정되어 1989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생산이 종료되고 1990년 5월 매각되었다.

(2) 나전

수갱건설사업 투자비

투자금액	제2수갱 건설	제1수갱 연장	계
외자(천U\$)	1,521	695.2	2,216.2
내자(억 원)	195	78	273
계 (억 원)	314	130	444

1967년 인수후 운영 적자에 의한 경영부담으로 1972년 휴광된 바 있다. 1975년부터 재개발에着手, 한때 20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유지하였으나 원가상승과 누적적자로 영월과 함께 매각이 결정되어, 1990년 6월말로 생산이 종료되고 9월에 매각됐다.

(3) 성주

1967년 나전과 함께 인수되어 1971년 생산량이 20만 톤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적자 누적으로 1973년 생산이 중단됐다.

제1차 석유파동 직후 재개발되어 주로 조광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조광권자의 폐광 요청에 따라 1990년 11월 폐광됐다.

(4) 화성

에너지 파동으로 석탄증산이 시급하던 1976년 매입하여 1977년부터 사외도급으로 개발하던 중, 개발 여건 불량으로 1981년 이후 조광으로 운영되어 왔다. 조광 계약은 1995년까지 설정돼 있었으나 조광권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1992년 7월 폐광 조치됐다.

(5) 함백



▲ 여의도사옥 투시도

매장량이 2억 톤에 달하고 탄질 역시 양호하다는 미국 경제고문단의 조사보고에 따라 대단위로 개발이 이뤄진 광산이다. 1976년 72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기도 했으나, 계속되는 운영적자로 1993년 6월 폐광됐다.

(6) 은성

1938년 12월 일본의 일산화학 공업주식회사에 의해 개발이 착수된 아래 고질탄의 생산광산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공사내 광업소 중 가장 심부화가 진행되었다.(주채탄 작업장 -629ML)

지열과 출수가 극심하고 하부로 내려갈수록 탄층이 빈약하여 개발 수익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하여 1994년 7월 폐광되었다.

다. 구조조정 단행

석탄증산 정책의 기조 하에서 공기능의 수행을 위해 확대 개편되었던 공사의 기구와 조직은, 정부의 정책이 감산으로 전환되면서 경영합리화 차원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지속된 구조조정의 결과 본사는 12부 2실 체제에서 4처 1실로 축소되었고, 3개 지사, 4개 영업사소, 5개 지원사소 등은 3개 사업소로 개편되었다.

(1) 무연탄 수입 중단

무연탄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저질탄을 생산하던 영세탄광이 폐광됨에 따라 무연탄 수입도 줄어들게 되자, 공사내의 수입관련 조직이 가장 먼저 정리됐다.

1989년 수입부가 영업부에 통합되고 목포사무소는 광주지사로 전환됐으며, 1991년 미국지사가 폐지됐다. 부산, 인천, 호남사무소는 1990년 정부의 산업용 괴탄 수입 창구 일원화 조치에 따라 판매와 수입업무를 병행하기도 했지만, 1997년 수입 자유화조치 이후 괴탄 수입업무가 종료됨으로써 폐지 또는 비축사업소로 전환되었다.

(2) 공급기구 정비



▲ 수입 무연탄이 인천에서 하역되고 있다.



▲ 1983년 조성된 석항 비축장

1995년 정부의 석탄산업 종합대책 시행 이후 국내 무연탄의 수요가 정책수요에 의존하게 되면서 공사의 판매, 공급을 위한 사업소가 단계적으로 정리됐다. 1996년에는 선박 매각으로 해상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창립 이후 줄곧 해상공급을 담당해온 부산지사가 폐지되고 목호사무소는 도계로 편입되었다. 또한 광주지사는 와룡사무소와 통합되어 비축사업소로 전환되었다.

(3) 지원사업소 정리

공사의 경영합리화 정책에 따라 1986년에 설치됐던 백암휴양소가 1992년 폐지 막각되고, 국내 석탄산업 기능인력의 산실이었던 태백훈련원은 기능이 축소되어 1994년 연구소와 통합되었다. 지난 50년간 쟁목의 수급안정과 조림사업을 수행해온 임무소는 쟁도의 철화로 쟁목 수요가 줄어듬에 따라 1998년 폐지되었고, 기술훈련원마저도 1998년 장성의 부속 기구로 전환되었다.



▲ 탄광 기능인력의 산실이었던 태백훈련원

(4) 인력감축

이 밖에도 공사는, 개광 아래 유지되어 오던 3교대 생산체제를 1998년 11월부터 2교대로 전환하고, 경비업무와 같은 단순작업은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등 인력 감축

을 실시했다. 또한 1996년과 1998년 명예퇴직 확대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함으로써, 1987년 1만4천 명에 이르던 인원은 2000년 2689명으로 축소하였다.

라. 통폐합과 민영화

(1) 공기업 구조조정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이 한창 시행 중이던 1990년대 초, 공사는 자본금을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증자하여 장기생산체제의 확립을 꾀하는 한편, 전직원의 자발적 참여 하에 ‘재해추방운동’ ‘자기 뜻 다하기운동’ 등을 전개하여 경영수지 개선에 주력하였다.

1993년 말 정부는 경제분야 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결정하고, 유사한 기능의 기관들에 대한 통폐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통폐합 추진 대상에는 공사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신문지상에는 2~3년 내에 공사가 한국전력과 합병하는 방안과, 대한광업진흥공사와 통합하는 방안이 계속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통합시 예상되는 제반 문제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2) 한보 매입설

10개월간 각종 ‘설’ 만 난무할 뿐 확고한 정책은 제시되지 않던 공사의 구조조정은, 1994년 8월말 갑자기 등장한 ‘한보 인수설’로 인해 급류를 타게 되면서 그해 9월을 뜨겁게 달구었다.

‘한보 인수설’은, 한보가 공사 인수에 대한 의향서를 상공부에 문서로 접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직원에게 알려졌다. 그리고 9월 8일¹¹ 한보는 아산만에 추진 중인 60만kW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석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사를 인수한다. 상공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사의 정리방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한보의 인수를 반대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일간신문에 보도되며 공식화 되었다.

당시 한보측에서는 공사를 인수하면 모든 임직원에 대한 신분 보장은 물론 장성, 도계, 화순 등 광산지역 발전을 위해 신규사업을 벌일 계획임을 추가로 밝혔다. 그러



▲ 1986년에 건립된 백암연수원 내부

〈직장 새마을운동과 “내가 바로 주인일세”〉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그 후 직장으로 확산됐다. 이 때 공사는 직장 새마을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내가 바로 주인일세”라는 노래를 만들어 보급했다.

이 노래는 1977년 4월 14일 개장회의에서 이훈섭 사장이 행한 훈시 내용에 곡을 붙인 것으로 당시 이사장은 “직장 새마을운동은 곧 새직장, 새마음 운동”이라 강조하며 즉흥적으로 ‘새마음운동’의 취지를 노래 가사와 같이 표현했다.

(이훈섭 작사, 한태근 작곡, 별넷 노래)

1. 너와 나의 협력으로 우리 직장 좋아지고
우리 직장 좋아지면 우리 살림 안정되네
회사 주인 따로 있나 내가 바로 주인일세
우리 모두 새 맘으로 우리 직장 더 가꾸세

2. 너와 나의 협동으로 우리 마을 좋아지고
우리 마을 좋아지면 우리 나라 번영하네
마을 주인 따로 있나 내가 바로 주인일세
서로 돋는 새 맘으로 우리 마을 잘 가꾸세

나 그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도리어 장차 예상되는 민자 발전사업 허용과 광산 촌 개발사업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 언론에 의해 제기되었다.

유연탄화력발전소를 민영화할 경우 기존 운영업체에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고 또 한 정부의 광산촌 개발 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6천만 평에 달하는 임야는 금싸라기로 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공사는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여 정부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각계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함에도 매각이 기정 사실화됨에 따라 급기야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본사에서는 연일 한보에 대한 매각을 반대하는 시위가 개최되었고 광업소 지역에서는 주민들까지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다. 민영화 문제는 9월 29일, 본사에서 실시된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로까지 전달되어 단순한 매각이 아닌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9월 30일, 당시 상공위원으로 태백시 국회의원이던 유승규 현사장 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되었다. 그리고 10월 1일,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민영화 백지화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공사가 처한 현실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긴 하였으나 당시 논란이 됐던 '한보가 공사를 인수하려던 진짜 이유' 와 '정부의 추진배경'에 대한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한보가 특혜 시비로 몰락한 후 게재된 한 일간신문의 기사를 통해 그 의혹을 다소나마 읽을 수 있다.

마. 경영다각화사업 추진

공사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경영다각화 사업으로 1994년, 유연탄 공급사업과 골재 공급사업에 착수했다.

(1) 유연탄 공급사업

중국으로부터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하여 한전에 공급하는 유연탄 공급사업은, 중국 유연탄광 개발사업과 함께 추진됐다. 공사는 중국 엔조우광무국과 개발자금 융자 방식의 합작 개발을 추진하면서, 그 전 단계로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난툰탄을 수입하여 한전에 공급했다.

당시 정부, 공사, 한전 3자는 공사가 중국에서 개발한 유연탄이 수입될 때까지 난

툰탄에 대한 독점 공급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1994년 6만3천 톤을 공급한 데 이어 1995년에는 50만8천 톤을 공급하여 약 1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1996년 들어 한전이 갑자기 직수입 방침을 고수하고 나오면서 공사의 유연탄 공급 사업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였고, 협작개발 역시 투자 상대기관이 석탄 수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

합리화기의 경영상황(1987~2000)

(단위: 천원, 천톤)

연도	자본금불입	생산	판매	인원(명)	당기손익
1987	6,000,000	5,178	5,029	13,949	-3,080,797
1988	5,000,000	5,221	5,034	13,055	109,974
1989	5,000,000	4,953	4,487	12,005	-4,990,461
1990	10,000,000	3,988	4,465	10,262	-21,021,568
1991	10,000,000	3,845	3,967	9,078	-8,097,437
1992	8,000,000	3,624	3,113	7,893	-4,366,419
1993	17,000,000	3,069	2,914	6,749	-26,452,867
1994	10,000,000	2,616	1,827	5,704	-30,845,940
1995	84,323,000	1,974	1,698	5,208	-27,956,706
1996	20,000,000	1,777	1,668	4,827	-45,960,864
1997	20,000,000	1,599	1,602	4,265	-83,292,448
1998		1,574	1,653	3,227	-154,780,862
1999	80,000,000	1,474	1,602	3,023	-79,645,096
2000	70,000,000	1,476	1,583	2,689	-74,000,556

(2) 골재 공급사업

1994년 8월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한 공사는, 화순의 경석장과 임야를 임차해 골재를 생산하던 광창산업(주)으로부터 생산시설을 매수하고 직접 생산에 착수하였다.

1995년 전남골재사업소를 설치하고 4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 1998년 상반기 까지 운영하였으나, 공사설립 목적 외의 사업인데다 판매 부진과 골재사업 전망의 불투명 등을 이유로 1998년 7월 전남골재사무소를 폐지하고 사업을 마감하였다.

3 50

주)공사는 석탄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영월과 나전의 폐광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에서 지역주민의 반발을 우려하여 '폐광' 대신 '매각' 으로 수정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황폐화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출발하여, 온갖 시련과 난국을 극복하며 국내 석탄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생활의 향상, 산림녹화의 실현 등 그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해방 직후 극심한 연료난을 겪는 가운데 설립된 공사는 끝없는 석탄증산을 통해

매각 직전 운영상황

항목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생산량(톤)	93,348	98,102	92,869	83,790	67,583	-
인원(명)	37	43	45	49	46	-
손익(백만원)	-798	-991	-1,256	-967	88	-322
생산원가(원/톤)	40,655	44,733	50,963	51,996	52,641	-
공사 평균	37,230	39,306	42,514	46,097	49,505	56,570

국가재건과 경제부흥에 필요한 연료의 자급자족을 이루해냈고, 나아가 임산자원에 의존하던 국민 연료를 석탄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황폐화를 막아냈다.

정부 직영광산을, 그것도 전쟁으로 폐허된 상태에서 인수받아 피와 땀으로써 정상화시킨 결과, 1949년 1백만 톤 수준에 불과하던 석탄의 생산량을 1988년 520만 톤으로 증진하였다. 황무지나 다름없던 국내 석탄산업의 개발을 지원하여 석탄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증산을 선도하여, 1960년대 고속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1970~1980년 두 차례의 에너지 파동의 위기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수호하는 견인차 역할을 다

매각 직전 운영상황

항목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생산량(톤)	216,210	230,150	218,330	174,510	145,404	56,056
인원(명)	622	677	601	414	350	-
손익(백만원)	-3,034	-3,023	-3,174	-2,987	-995	-2,606
생산원가(원/톤)	44,254	45,688	47,778	53,790	55,143	74,340
공사 평균	37,230	39,306	42,514	46,097	49,505	56,570

하였다.

석탄의 분배(1961년 이후 '판매'로 변경되나 석공탄은 주로 정부의 수급계획에 따라 공급되어 왔다)와 수송 및 수급 조절로 국민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는 한편, 연탄 개량 및 활용방안 개선, 정책 개발 등 연료전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 매각 직후 폐쇄된 영월 전차갱구

여 석탄 시장을 확대했다. 공사의 이 같은 노력으로, 장작에 의존하던 가정용 연료가 연탄으로 전환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은 물론 산림녹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대한석탄공사는 '공사' 형태로 설립된 최초의 기업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공히 기업이 채 성숙되기 전인 1950~60년대에 국가 경제를 주도해 온 기업이었기에, 그 족적은 비단 석탄개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사가 제정 시행하는 각종 규정과 제도는 이후 기업들의 모델이 되었고, 공사에서 추진하거나 담당한 무연탄 화력 발전, 해외 인력 파견, 체육팀 육성 등은 정부 정책으로 발전하여 고도 성장과 국위선양의 밑거름이 되었다.

1. 경제개발의 원동력 제공

가. 석탄증산

공사 창립이 논의될 당시 국내 석탄생산량은 불과 1백만 톤 정도였다. 석탄생산량 부족으로 전기생산은 물론 철도 운행이 중단될 정도로 에너지 기근은 심각했고, 대외 원조에 의존하여 근근히 연료를 조달하는 형편에 국가재건이니 경제부흥은 꿈

매각 직전 운영상황

항목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생산량(톤)	590,100	556,000	416,500	335,100	290,600	92,176
인원(명)	1,702	1,553	1,161	894	626	36
손익(백만원)	-4,411	-5,437	-5,054	-5,500	-5,151	-4,368
생산원가(원/톤)	48,156	52,941	57,046	66,515	85,835	148,017
공사 평균	46,097	49,505	56,570	60,180	76,819	90,849

도 꾸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전쟁의 불길로 생산기반마저 모두 폐허가 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공사는 석탄증산에 혼신을 다하여 1988년에는 520만 톤을 생산하였고, 2000년까지 총 2억 톤에 달하는 석탄을 생산 공급하였다.

공사의 석탄증산은 정부가 지정한 한정된 광구 내에서, 그것도 대부분이 1930년대 개발이 시작된 노후광산에서 이루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대부분 1960년대 들어서야 개발이 시작된 3백개 이상의 민영광산이 이루어낸 증산 성과와는 질적인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 1993년 폐광된 함백광업소



▲ 폐광 직전의 은성광업소

나. 산업용 연료 공급

매각 직전 운영상황

항목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생산량(톤)	280,000	256,300	219,550	183,300	145,121	81,631
인원(명)	763	703	562	475	406	23
손익(백만원)	-848	-2,605	-3,564	-2,023	-2,498	-11,117
생산원가(원/톤)	58,439	64,281	77,441	98,912	120,806	183,350
공사 평균	49,505	56,570	60,180	76,819	90,849	108,090

석탄이 국가 산업의 주요 동력원이던 1950~60년대에 공사는 철도, 발전, 산업용에 대한 공급을 거의 전담했다. 당시 정부에서는 물가안정과 조속한 산업 부흥을 위해 석공탄의 가격을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억제하고 더구나 산업용 공급 가격은 민수용보다 낮게 책정하는 가격 정책을 고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는, 경영상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산업용 공급이라는 책무를 다하여 경제부흥에 이바지했다.

한편 민영탄은 초창기에는 가격 면에서 유리한 민수용으로 공급되다가 1958년 공급 과잉이 발생하자 발전용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 후 1968년 발전용 탄이 민수용 탄의 가격과 동일해지면서 민영의 발전용 탄 공급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석유파동 이후 1980년대 말까지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로 민영탄이 거의 독점하기에 이른다.

다. 전력증강의 기초 제공

1950년대 말부터 추진한 공사의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은, 1960년대 국내 전력생산 증강계획의 기초가 됐다.

당시 국내 발전사업은 조선전업 등 전력 3사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주로 일제 때 건립된 수력발전에 의존하여 전기공급 사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 때 공사는 석탄 증산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산탄지에 체화된 저질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소의 건립을 추진하였고, 나아가 정부의 2000만 톤 증산계획 실현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200만 톤의 저질탄 활용을 위해 4개의 추가 건립계획까지 수립하였다.

비록 실현단계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전으로 이관되기는 했으나, 공사의 저

질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사업 계획은 발전 연료를 수력에서 석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1960년대 발전사업의 핵심이 되었다.

라. 해외인력 파견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을 거듭하여 '한강의 기적'을 실현하기까지에는 국내 근로자의 해외 파견이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 해외인력 파견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화 획득뿐 아니라 선진기술 습득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공사는 1960년대 초 국내 취업난의 해결과 선진기술의 습득 그리고 외화획득을 위해 국내 광부의 서독 파견을 추진하였다. 최종 단계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긴 했으나, 이는 대규모 해외인력 파견의 효시로서 경제개발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발전하게 된다.

당시 서독 파견 광부는 또한 한국인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 국민의 근면성을 배워오는 계기가 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

마. 에너지정책 개발

1955년 정부는 5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는 석탄생산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정부가 최초로 수립된 체계적 중산계획이었으나, 사실상 일년 전 이미 공사가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던 '생산 5개년계획'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그후 정부의 중산계획은 1956년 5개년 연료종합계획, 1957년 탄전종합개발 10개년계획, 1959년 석탄증산 8개년계획으로 발전을 거듭한 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포함되게 된다.

또한 1965년 경제과학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정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종합에너지 수급전망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사는 이미 1959년부터 종합에너지 개념을 도입하여 종합적인 수요 분석을 실시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의 '종합에너지 수급전망과 개발계획'은 1965년을 기준으로 매년 7%의 경제성장과 연평균 11.6%의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달성을 전제로 하여 1970년까지의 에너지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에너지를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국가경

제의 안보 개념으로 인식하고, 석탄과 관련하여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점진적 국유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석탄은 발전용 및 산업용 보일러에 주로 공급하고 민수용으로는 석유 또는 가스를 사용토록 함이 종합효율개선의 원칙'(석탄의 민수용 열효율이 발전용이나 산업용보다 낮으므로 이용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상 타당하다”는 것이 당시의 판단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전력의 국유화'에 이어 석탄의 점진적인 국유화'와 석유의 민영화'로 나아갈 것을 제시하였다.

2. 석탄산업 기반 조성

가. 인력공급

해방 후 석탄산업이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시급했던 것 중 하나는 기술인력난이었다. 일본인 기술자가 철수하고 강제 징집 당했던 근로자들이 귀향해 버림으로써 탄광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었다. 당시 남한의 탄광에서는 평양 등지의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월남한 일부 한국인 기술자에 의존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당시 석탄과장으로 공사 설립에 참여하기도 했던 정인욱 씨(강원산업 회장, 공사 8대 총재)는 “석공을 통해 기술인력을 양성케 하여 장래 국내 석탄산업을 이끌어 나가게 하자”며, 공사를 석탄산업 발전을 위한 사관학교화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공사는 경영이 흑자로 전환된 직후인 1957년 장성에 기술훈련소를 설치하여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에 기술진을 파견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양성된 공사의 기술인력은 1960년대 이후 민영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대거 현장에 참여하여 고속 성장을 주도하였다. 또한 일부는 학계에 진출해 광산인력 양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공사의 인력양성 노력은 그 후에도 계속됐다. 1970년대 중동건설 붐으로 광산인력이 대거 해외 진출하면서 국내에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공사는 1980년 광산공고 설립을 지원하고 1985년에는 태백훈련원을 설립해, 광산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초교육을 담당함으로써 능률향상과 재해예방에 기여했다.

나. 민영탄좌 조성

공사는 민영탄광 개발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했다. 1961년 석탄개발 임시조치법 제정으로 민간에 의한 대단위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962년 『광업개발조성법』이 제정되면서 공사는 민영탄광의 개발 지원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공사가 수행한 업무는 기술지원, 지질조사 및 연구, 관리의 수임 및 협조, 차관 및 융자의 알선, 공동시설의 건설, 탄광 기자재의 구매 및 임대 주선, 석탄의 매매 알선, 인원 훈련, 외국 차관의 유치 등 경영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이렇게 설립된 대형 탄좌는 국내 석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여 1970~80년대 증산을 선도하게 되면서 두 차례의 석유파동이라는 위기의 극복에 함께 기여했다.



▲ 1997년 2월 6일 국민일보기사

〈통산부 박재윤-한보 관련 미스터리(1997년 2월 6일 국민일보)〉

90년대 한보의 고속성장은 천문학적인 자금대출외에도 대형사업을 밀어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박재윤 전 통상산업부장관은 한보가 성장일로에 있던 시기에 청와대 경제수석(93.2~94.10)과 재무부장관, 통상산업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공직 재임기간 동안 어떤 로비나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게 쏟아지는 한보 미스테리는 크게 네가지. 첫째는 상업성 논란을 빚고 있던 ‘코렉스(용융환원)’와 DR(직접환원철) 도입 신청의 일사천리 수리. 두 번째는 러시아 루시아석유회사의 지분 인수. 세 번째가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의 석공 매각. 그리고 92년의 3천만 달러에 달하는 한보에 대한 외화대출.

(석공 인수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상공부로부터 한보측의 제의를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그는 밝혔다. 한보는 당시 석탄공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실시를 끝내고 전방위 로비전을 펼쳤던 것으로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한 공사는 판매와 자금 지원을 하기도 했다. 창립 초기 공사는 중소 민영탄광 육성 방안의 하나로, 당시만 해도 판매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민영탄광들의 탄을 매입하여 공급한 바 있다. 그리고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상공부 지시에 따라 여름철에 민영탄광에서 생산된 탄을 매입해 두었다가 겨울철에 공급하는 한편, 공사가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긴급 차입해온 자금의 일부를 민영에 전대하는 등 자금의 지원도 행하였다.

당시는 연료전환으로 인해 판매난을 겪던 시절로 공사도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해 인건비 지급도 미쳐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여름철에 매입해둔 민영탄이 겨울철에도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영탄광에 대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공사의 비용 부담과 운영자금 압박의 원인이 되었다.

다. 수요 확대

공사는 1950년대 말 도시지역, 1960년대 말에는 농촌지역의 연료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석탄의 수요 확대를 주도했다. 이 같은 신규 시장의 개척은 석공탄의 판매난 해소를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 석탄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석탄산업 전반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결과를 낳았다.

연탄공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던 대형 민영탄광이 석탄산업이 침체되기 시작한 1960년대 말에도 최대의 호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연탄 수요의 증대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겨울철 가정용 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된 석공탄의 하계저장' 역시, 개발 초기에 있던 민영탄광들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했다. 여름철 민수시장에 석공탄이 공급될 경우 판매경쟁이 심화되어 아직 개발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일부 민영으로선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3. 연료전환과 산림녹화

골재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생산량	판매량	재고	매출액	손익
1995	204,306	163,526	40,780	678,891	-153,089
1996	306,600	215,506	131,874	922,447	-305,453
1997	220,340	195,137	157,077	974,969	-453,727
1998	82,650	70,933	168,794	341,177	-1,265,364

가. 연료전환

공사는 1954년 대한 열관리협회를 설립하여 가정용 연료로 연탄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열관리협회를 설립할 당시 국내 산림 여건은 나무가 전혀 없는 무임목지의 면적이 45.1%에 달해, 연간 1670만 톤씩 소비하는 당시의 신탄 사용량을 감안할 경우 8년이 못 가서 전 국토가 벌거숭이로 변할 상황이었다.

열관리협회는 종전의 온돌구조를 크게 손보지 않고도 연탄 아궁이로 개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또 당시 제각각으로 제작되고 있던 연탄에 대한 규격과 열량을 분석하여 표준 규격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사는 연탄의 보급 확산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연료전환을 주도하였다. 공사가 건의한 주요 도시에 대한 장작반입금지 조치는 1962년 정부의 '산림녹화 5개년계획'에 반영되었다. 1968년에는 시범 부락을 선정하여 아궁이 개량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산자원에 의존하던 가정용 연료를 연탄으로 전환시켰다.

농촌 지역의 연료전환은 새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임산자원의 사용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열관리협회를 설치할 당시 총 에너지 사용량의 80%를 담당하던 임산자원은 1976년 1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나. 조림

공사는 창립 직후 임무소를 설치하여 갱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조림사업을 전개했다. 조림사업은 광대한 지역에 걸쳐 장구한 세월동안 이뤄지는 사업으로 산불, 병충해, 기상여건 등 제약 요소가 많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조림 후 최소한 25년이 지나야 갱목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 최초의 석공법에는 공사의 존립기간이 20년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조림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공사는 광해예방과 산림녹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이용할 수 있다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하여 왔다.

초기에는 추후 갱목으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어 광업소 인근에 주로 낙엽송을 조림하였으나, 1960년 이후에는 산림녹화 정책에 호응하여 조림지역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수종도 잣나무, 소나무 등으로 다양화했다.

1998년 임무소가 폐지될 때까지 총 2만ha의 임야에 6241만 주를 조림함으로써 모

두 6천만 평의 산림을 조성하였다.

4. 법규와 제도의 기틀 마련

가. 안전규정과 광산보안법

공사는 광산재해 예방과 재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1958년 안전업무 담당 기구를 사내에 설치하는 한편, 광산 안전에 대한 모든 대책을 망라한 종합적인 규칙 제정에 착수하여 1962년 1월 1일 「안전규정」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는 국내 최초의 광산 안전에 대한 규정으로, 1963년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되는 『광산보안법』의 기초가 되었다.

나. 부조규정과 노동관계법

창립 1년 뒤인 1951년 11월 공사는 「광원부조규정」을 제정하여 업무상 재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장해 정도에 따라 1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소정일수의 평균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한 1952년에는 각 광업소의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폐증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1956년에는 그 진단을 위해 일제 건강검진을 시행하였으며, 탄광내 분진 작업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는 1953년에 제정되는 근로기준법과 1963년에 제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4년에 제정되는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노동관계법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었다.

다. 공개채용과 근무평정

우리나라 기업이 미처 틀을 갖추기 전부터 공사는 인사의 공정성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왔다. 1952년 인사규정을 제정 시행한데 이어 1957년에는 인사고과 규정을 제정하여 근무평정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1957년부터 직원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채용을 시도하였으며, 1962년 7월에는 사원 신규채용고시 및 전형규정을 제정하여 공개채용을 제도화 하였다.

라. 갱도규격 표준 품셈 제정

공사는 1973년부터 갱도 규격에 대한 품셈표를 제정하여 사용 목적에 따른 갱도 규격을 통일화하고 시공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였다.

갱도는 용도에 따라 수평, 중단, 사강, 승 등 4개로, 지주는 종류에 따라 철쉬와 목쉬로, 또 작업의 조건에 따라 특수와 일반, 암석의 종류에 따라 경질, 보통, 연질로 각각 구분하여, 모두 26개의 규격별 건설경비에 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표준 품셈은 이후 국내 모든 탄광에서 기준 모델로 이용되었다.

5. 기업문화의 선구

가. 체육팀 운영

1961년 11월 공사는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체육팀을 설치 육성함으로써 한국 체육발전의 주춧돌이 되었다. 당시는 1964년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는 등 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던 때였다. 그러나 경제불황과 재정부족으로 기본생활 유지도 힘든 형편에서 운동선수를 지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에 당시 국내 최고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자랑하던 공사는 운동선수들에게 마음놓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집중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공사는 육상부, 역도부, 펜싱부, 복싱부, 축구부, 배구부로 구성된 체육팀을 설치하였다. 또한 총재가 대한육상연맹 회장에, 부총재는 대한펜싱연맹 회장에 취임하는 등 체육 육성에 앞장을 섰다.

연탄파동 후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체육팀은 해산되었으나, 1969년 10월 직장체육 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악회, 배구회, 낚시회, 탁구회 등 각종 사내 동호인 모임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기업문화를 선도하게 된다.

◎ 공사 체육팀의 활약상

공사의 체육팀은 각 부문별 국가 대표급으로 구성되어 당시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 육상부

1962년 3월 제17회 경인역전 경주대회에 처녀 출전하여 2위에 입상한 것을 시작으로, 그해 가을 대구 전국체전에서 마라톤, 투해머, 100m, 200m, 300m 장애물 등에서 우승을 거두었다. 또한 마라톤의 김연범 선수는 2시간 23분 56초의 기록으로 4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개신하였다.

제34회 단축마라톤 대회에서는 김봉래 선수가 우승했고, 정기선(100m), 정재걸(200m), 조창래(3000m장애물), 조진선(넓이뛰기), 임동실(투해머), 박영실(여자 넓이뛰기, 높이뛰기), 한명희(여자800m) 선수 등은 동경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하였다.

□ 역도부

유인호(반탐급), 김해남(폐더급), 고영창(미들급) 등 국가대표급 선수가 주축이 된 당시 최강팀으로, 1963년 전국체전에서 유인호, 허창법(미들급) 선수가 국내 역도계를 제패했다.

□ 복싱부

복싱부의 수준은 세계적이었다. 정신조(플라이급) 선수는 1962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의 금메달에 이어 1964년 동경올림픽에서 우리 국민에게 사상 두 번째의 올림픽 은메달'을 안겨주었다.

그 밖에도 박희도(반탐급), 조필규(라이트급), 황영호(폐더급), 이홍만(라이트웰터급), 김성출(웰터급), 이금택(라이트웰터급), 김덕팔(미들급) 등 국가대표 선수들은 1963년 대만에서 개최된 한·중·일·비 4개국 친선경기에 출전하여, 정신조, 박희도 황영호, 김덕팔 선수가 우승했다. 한편 1960년대 말 프로로 전향한 이금택과 김덕팔 선수는 당시 하늘의 별따기와 다름없던 동양챔피언에 등극하기도 했다.

□ 펜싱부

1963년 4월, 김병열 부총재가 한국펜싱연맹 회장에 취임하면서 팀이 구성됐다. 그 해 가을 제44회 전국체전에서 유현일이 포일·세이버에서 우승하고, 이성원이 예빼우승, 포일 3위, 세이버 4위를 기록했으며, 한세현이 포일 2위, 세이버 2위 등을 기록

해, 공사의 검사들이 1. 2. 3위를 모두 휩쓸었다.

▣ 축구부

당시 공사의 축구팀은 가는 곳마다 인기 최고였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활약한 장경환, 박종환, 이회택 씨등이 공사의 축구팀의 일원이었다.

나. 사보 발행

기업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보(社報) 발행에 있어서도 공사는 가장 앞섰다. 공사는 1953년 2월, 다른 기업에서는 사보란 개념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을 때 사보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공사가 최초로 발행한 「석공사보(石公社報)」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보의 효시로 알려져있는 1958년 태평양화학의 「화장계」보다 5년 앞서 나온 것이었다.

연구논문과 문예 그리고 통계편으로 구성된 「석공사보」는 1955년 「石炭」으로, 1969년에는 「석탄산업」으로 변경되었으며 1982년 2월 「월간석공」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기에는 1년에 한번씩 발행되어 연간지의 형태를 띠었으나, 1955년 2회로 늘어났고 1962년에는 계간지로 발전하였다. 1982년 「월간석공」으로 변경된 후에는 매월 발간되었고, 1998년 7월 이후 격월간으로 바뀌었다.

한때 사보를 보완하기 위해 신문 형태의 사보가 함께 발행되기도 하였는데, 1970년 3월부터 1981년 11월까지의 「석공사보」와 1987년 9월부터 1988년 3월까지의 「석공소식」은 한 달에 두 차례씩 발간되었다.

다. 심볼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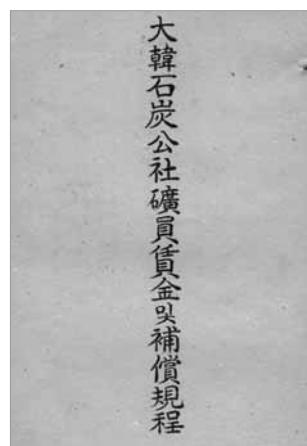
공사의 심볼마크는 1955년 현상 공모를 통해 채택됐다.

당시 권영관 총무과장이 제안했던 현재의 마크는 가장 안정된 모습인 삼각형을 기본 형태로 하여 금수강산에 매장된 석탄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세 방향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또한 마크 속에 “石公”的 문자를 담기도 했다.

라. 사가(社歌)

1967년 제작된 공사 사기는 당대 최고의 시인 박목월이 작사하고 나운영이 곡을 붙였다. 당시 공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역으로서 국가 산업시설에 동력을 제공하고 석탄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 등 조국 근대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또한 한 국민의 연료를 신탄에서 연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므로써 국민 생활 향상은 물론 산림녹화에도 기여했다.

작사자는 이러한 공사의 역할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조국의 근대화”를 이루고 국민 모두의 꿈인 조국 번영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가사를 만들었고 작곡자는 빠른 템포의 곡을 붙여 힘찬 사기를 만들었다.



▲ 광원부조규정



▲ 동경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신조 선수



▲ 1953년 창간된 「석공사보」
국내 최초의 사보였다.

〈마크의 의미〉



삼각형은 환경변화에도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안정된 형태로 "山" 자를 형상화했다. 황색은 금수강산을, 검은색은 석탄을 상징한다.



우변과 하변을 제외하면 "石"자가 된다.



하변을 제외하면 "公"자가 된다.

